

SPECIAL THEME:

2025 경기도무용단 기획공연  
<찬연의 행궁>

예술과  
만남

만남



## CONTENTS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5년 10+11월  
통권 175호  
ISSN 2234-5949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김상희  
편집장 임선미  
편집 담당 김규량, ACE(예술과만남 편집회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6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편집·디자인 문화공감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예술과만남>을 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SPECIAL

- 06 VIEW  
열린 마음으로 공연과 연결되는 순간  
경기도무용단 <찬연의 행궁> 감상 따라잡기
- 10 THEME  
태평성대를 담아낸, 개혁 군주의 꿈을 그리워하다  
정조의 꿈이 서린 수원 화성행궁, 그 역사와 서사
- 14 INTERVIEW  
문화유산을 춤추게 하라  
춤으로 피어나는 천년 경기  
김경숙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

## STAGE

- 20 PREVIEW  
① 차세대 국악 명인, 5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젊은 명인: Young Virtuoso>
- ② 두 거장의 영혼이 깃든, 건반 위의 축제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라벨 150 & 쇼스타코비치 50
- ③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과 울림의 무대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 <불멸>
- 28 REVIEW  
① 광복을 향한 노래, 국악관현악·합창으로 녹아들다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 ② 강렬함으로 완성된 가을의 낭만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
- ③ 투명하게 빛나는 여름 향기  
Classic of My Playlist <음, 향>

## INSIGHT

- 38 ART AND THE CITY  
살아있는 캔버스 같은 도시, 런던
- 44 ATTRACTION  
연극을 사랑하는 일본인이 바라본 대학로
- 50 ARTIST TALK  
당신의 소울에 힐링과 위안이 필요하다면  
브라질 재즈 밴드, <세룰리안 블루> 인터뷰
- 54 ON & OFF  
미술 성지순례의 시대, 전시장에서 예술 성지까지
- 56 ESG & ART SCENE  
생성형 AI시대의 위기와 예술에서 해법 찾기

## GGAC STORY

- 60 ZOOM IN  
담을 넘는 예술, 거리로 나선 감동  
<거리로 나온 예술> 조일현·정의연·지수원 PD
- 64 GGAC NEWS
- 66 CALENDAR
- 68 EPILOGUE



김경숙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



# 만남

## MINI INTERVIEW

“<찬연의 행궁>은 정조대왕에 포커스를 맞춰 구성됩니다. 화성행궁이 정조대왕의 흔적이잖아요. 이야기를 특정 인물에 집중해 드라마 요소를 더하고, 실경 화성행궁 유여택을 배경으로 공간을 확장했죠. 이번 공연에서는 왕께서 장용영 권법수련무를 지켜보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민심을 살피기 위해 야행을 떠나는 장면,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효심, 백성을 위한 태평성세의 염원을 춤과 노래로 이야기하며 끝이 나죠.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다른 콘텐츠에는 없는, 정조대왕이 사용하던 공간에서 펼쳐지는 춤과 음악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 SPECIAL



## VIEW

열린 마음으로 공연과 연결되는 순간  
경기도무용단 <찬연의 행궁> 감상 따라잡기

## THEME

태평성대를 담아낸, 개혁 군주의 꿈을 그리워하다  
정조의 꿈이 서린 수원 화성행궁, 그 역사와 서사

## INTERVIEW

문화유산을 춤추게 하라  
춤으로 피어나는 천년 경기  
김경숙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







실경공연  
춤  
사극  
드라마

# 찬영의 행궁

2025.  
10.03.(금)  
- 04.(토)  
14:00, 20:30

수원  
화성행궁  
유여택

티켓  
전석 40,000

주최·주관  
경기아트센터

예매  
NOL 티켓  
1544-2344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공연문의  
031-230-3373

경기도무용단이  
춤추는 정조의 조선

출연  
경기도  
무용단

# 열린 마음으로 공연과 연결되는 순간

경기도무용단 <찬연의 행궁> 감상 따라잡기

공연을 관람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대를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예술이 만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피어나 잔잔한 물결처럼 번져 나가는 경험이다. 유구한 세월을 넘어 온 화성행궁의 무대가 현재의 우리 앞에 생생히 되살아 왔다. <찬연의 행궁>, 과거를 달려 온 그리움처럼 감동은 가을처럼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글. 김기화(경기도무용단 기획실장, PAF 등단 평론가)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 몰입형 실경공연, <찬연의 행궁>

경기아트센터는 예술의 공공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실경공연 <찬연의 행궁>을 기획하였다. 이 작품은 글로벌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선보이며, 지역의 역사적 공간과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한 새로운 공연 형식을 제시한다.

실경공연 <찬연의 행궁>을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단순히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연은 예술적 감동과 역사적 매력, 공간의 분위기와 관객의 감수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다음의 다섯 가지 팁은 관람전 준비부터 감상 후 여운까지, 관객의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 실경(實景)공연이란?



① 장이머우 감독이 연출한 중국 리장의 실경공연.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이 기획한 <찬연의 행궁>은 10월 3일과 4일, 수원 화성행궁 유여택에서 실경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실경공연'은 전통적인 실내 무대가 아닌, 실제 장소-즉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공연이 펼쳐지는 형식을 말한다. 자연과 건축, 그리고 시간의 흔적이 무대가 되어 예술적 서사를 담아내는 것이다.

실경공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 장이머우 감독의 '인상 시리즈'가 있다. <인상 유상저>(2003)를 시작으로 <인상 여강>(2006), <인상 서호>(2007), <인상 하이난>(2009) 등은 지역의 문화자산과 자연경관을 활용해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공연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지역 주민의 대규모 참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낸 점에서 문화산업과 지역개발의 융합 모델로 평가된다.

장이머우 감독은 <인상 여강> 제작 당시 "위대한 유산 앞에서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단지 인상을 남길 뿐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짧은 문장은 실경공연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예술은 설명보다 인상으로 남고, 그 인상은 관객의 감각과 사유 속에서 다층적으로 해석된다.

### <찬연의 행궁>의 미학과 공간



② 유여택, 사진: 국가유산청.  
③ <찬연의 행궁> 무대 디자인.

<찬연의 행궁>은 중국의 대형 실경공연과는 달리, 한국 고유의 단아하고 섬세한 미학을 중심에 두고 기획되었다. 유여택의 'ㄱ'자형 공간 구조를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극장과 같은 집중도를 확보하면서도, 공간의 역사성과 미감을 살려 공연의 흐름을 밀도 있게 구성했다.

유여택은 궁궐보다는 양반가 사랑채에 가까운 형태로, 검소하면서도 품격 있는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유교적 단청기법인 '굿기단청'을 사용하여 색채에서도 절제된 미감을 표현한다.

정조의 집무 공간이던 유여택의 월대 앞에는 가로세로 15m, 높이 90cm의 무대가 설치된다. 이 무대는 다리로 연결되어 공간의 상징성을 확장하며, 유여택이 지닌 물리적 구조에 정조의 개혁에 대한 번뇌와 실천 의지를 담은 내외적 의미를 더한다.

확장된 무대 공간은 유여택의 월대와 연결된 교각에 황개(黃蓋)를 세워 임금의 공간임을 강조하고, 무대 네 귀퉁이에는 단청을 입힌 기둥을 세워 시각적인 통일감을 꾀하였다. 생성된 공간은 격조 있는 왕의 공간으로 확장되어, 공연 내내 몰입감을 유지하며 공간과 예술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관객이 직접 경험하게 된다.

특히 유여택에 배치된 여섯 개의 문은 단순한 출입구를 넘어, 공간을 분리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각 문은 왕의 공간, 내명부의 공간, 무사들의 공간 등으로 연결되며, 공연의 장면 전환과 상징적 호

름에 일관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구조는 관객으로 하여금 단일한 무대 위에서도 다양한 권력과 감정의 층위를 체험하게 하며, 유여택이라는 실제 공간이 하나의 살아 있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도록 만든다.

### 역사적 공간 유여택에 입힌 무대 미장센

공연이 펼쳐지는 시간대에 따라 자연 채광과 조명이 결합되며 관객에게 주는 인상이 달라진다. 낮 공연은 유여택의 고풍스러운 건축미와 조선시대 복식의 우아함이 어우러져, 개방된 시야 속에서 궁중문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반면 밤 공연은 조명과 밤하늘이 결합되어 집중도 높은 분위기 속에서 공연의 극적 몰입감을 더욱 심화시킨다.

역사적 공간에 공연의 미장센이 덧입혀지면, 정조의 정서적·심리적 변화까지 세밀하게 작동하게 된다. 유여택의 구조와 조명 연출은 시간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므로, 관람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받을 수 있다.

### 시놉시스와 장면구성

〈찬연의 행궁〉을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공연이 다루는 시대적 배경-조선 후기, 특히 정조시대-을 간단히 이해해 두는 것이 좋다. 작품은 정조의 철학과 백성을 향한 애민의 마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놉시스를 미리 읽어두는 것만으로도 몰입도가 크게 높아진다.

총 3막 8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정조의 정치적 고민과 결단을 노래와 대사로 풀어내고, 그 상황에 맞는 전통춤과 연결하여 전통 가무극 형태로 사극 드라마를 연상시킨다. 예(禮)와 악(樂)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이상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조의 철학이 공연의 중심 서사로 자리한다.

제1막은 '정조의 하늘 조선', 제2막 '백성의 노래로 민심을 살피다', 제3막 '찬연의 행궁'으로 구성된다. 8개의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막> 정조의 하늘 조선	<제2막> 백성의 노래로 민심을 살피다	<제3막> 찬연의 행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새벽, 운무를 가르치는 바람 정조를 호위하는 장용영 권법 수련으로 조선의 기상을 깨운다.</li> <li>• 제2장: 누각에 홀로 선 정조 정조는 고뇌 속에서 개혁의 의지를 다지고 노래로 선언한다. 훈령무를 통해 국방의 강건함과 백성의 평안을 상징한다.</li> <li>• 제3장: 예약으로 효(孝)를 고(告)하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예약으로 효심을 드러낸다. 무고(舞鼓)와 태평무(太平舞)로 궁중의 예를 표현하며 태평성대를 기원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잠행 정조는 밤을 틈타 궐을 나서 백성의 삶과 민심을 직접 살핀다. 고을 수령의 진쇠춤을 통해 충의를 확인하고 백성의 안녕을 기원한다.</li> <li>• 제2장: 풍년을 점치는 노래 달빛 아래 풍년을 점치는 월령가를 노래하며 백성의 삶을 헤아린다.</li> <li>• 제3장: 강강술래 보름달 아래 아낙들의 강강술래를 지켜보며 백성의 평화를 느낀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윤무가 조선의 태평을 상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평화를 꿈꾸는 정조의 아리야 정조는 백성의 웃음과 조선의 번영을 노래하며 평화를 꿈꾼다.</li> <li>• 제2장: 찬연의 행궁 정조와 백성들이 함께 찬란한 행궁의 잔치에 참여하며 조화를 이루는 춤을 춘다.</li> </ul>



### 서사자의 노래와 춤의 관계

〈찬연의 행궁〉에 등장하는 춤은 전통춤 또는 신전통춤 계열로, 장단 속 리듬을 운율화하며 양식화된 미적 질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춤은 일상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정형화된 형식 속에서 미학적 표현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 형식 안에서도 춤꾼의 해석에 따라 동작은 확대되거나 축소되며, 바로 그 변별적 표현이 공연 감상의 재미를 만들어낸다.

춤은 시간, 공간, 에너지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면의 분위기와 의미가 달라진다. 춤을 추는 춤꾼의 해석은 단순한 동작을 넘어 서사의 감정과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관객이 춤을 감상할 때 또 하나의 즐거움은, 서사를 이끄는 정조의 노래나 대사와 춤의 의미를 연결해 보는 상상력이다. 예를 들어, 정조가 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 고뇌를 토로하는 장면에서 펼쳐지는 훈령무는 단순한 무용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시각화한 상징적 표현이다.

공연에 등장하는 권법무, 훈령무, 태평무, 강강술래, 화합의 춤 등은 모두 정조의 1인칭 시점에서 부르는 서사자의 노래, 아니리, 대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춤들은 전통춤의 전승 과정에서 놓쳤던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며, 언어 없이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춤의 의미부를 확보한다. 이는 전통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관객에게 언어 너머의 감각적 공감을 경험하게 한다.

이상, 〈찬연의 행궁〉 감상 팀은 공연을 관람하기 전 작품의 흐름과 장면별 상징, 그리고 정조의 철학을 미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준비는 관람의 깊이와 감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며, 단순한 역사 재현을 넘어 공간과 예술이 교차하는 순간 속에서 관객의 감각과 사유를 자극하는 예술적 여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 태평성대를 담아낸, 개혁 군주의 꿈을 그리워하다

정조의 꿈이 서린 수원 화성행궁,  
그 역사와 서사

“예(禮)와 악(樂)은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이다.”

-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1, 「악학총의 서(樂學總義序)」

정조는 예(禮)와 악(樂)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이상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1795년 정조는 아버지를 기리는 묘소 이장과 더불어 화성행궁을 건립하고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열어 부모에 대한 효심을 극진히 실천했다. 더불어 노인을 위한 양로연, 젊은이들을 위한 과거 시험 등을 더해, 왕실의 행차가 단순한 왕실 행사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보듬는 애민 정신으로 승화시켰다. 이번 경기도무용단 기획공연 <찬연의 행궁>이 수원 화성행궁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펼쳐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편집실

1

## 화성행궁의 탄생

수원 화성행궁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궁궐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1794년부터 1796년까지 3년에 걸쳐 건설된 이 행궁은 정조의 개혁 의지와 부친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이 결합한 결과물이었다.

재위 13년인 1789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면서, 이곳에 관청으로 사용할 새로운 도시를 구상했다. 화성행궁은 그 중심에 자리한 핵심 시설이었다. 정조는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켜 위상을 높인 한편, 1795년 화성행궁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치르기 위하여 건물의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 지었다.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장남헌에서 이름을 바꾼 봉수당이 대표적이다. 1796년에 전체 600여 칸 규모로 완공되었다.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물거나 지방에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 거처하는 곳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위급함을 피하고 국사(國事)를 계속하기 위해 마련된 행궁으로 강화행궁, 의주행궁, 남한산성행궁 등이 있고,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행궁으로는 온양행궁이 있다. 그리고 왕이 지방의 능원(陵園)에 참배할 때 머물던 행궁으로 바로 화성행궁이 있다.

행궁의 건축 과정에서 정조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건축 기법과 과학 기술을 도입했다. 거중기와 같은 기계 장치를 활용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했고,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지혜를 모아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건축 설계를 완성했다. 이는 단순히 왕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 공간을 창조하려는 의도였다.



화성능행도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수원 화성행궁 신평루. 사진: 국가유산청.

화성행궁은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왕이 백성들과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정조의 민본주의적 정치 이념이 공간적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궁의 각 전각은 정조의 정치적 이상향과 개인적 감정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장소들이었다. 정조는 1790년 2월부터 1800년 1월까지 11년간 12차례 걸친 능행(陵幸)을 하였으며, 이때마다 화성행궁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였다.

### 정조의 원대한 꿈과 효심

정조에게 화성행궁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실이자,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동시에 그가 꿈꾸는 조선의 미래상이기도 했다.

먼저, 정조에게 화성행궁은 왕권 강화의 거점이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그는 기존 정치 세력의 견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규장각을 통해 양성한 신진 관료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체제를 실험했고, 상공업 진흥과 농업 개혁을 통해 민생 안정에 힘썼다. 화성행궁에서 바라본 수원 신도시는 정조가 꿈꾼 이상적 도시의 축소판이었다.

다음으로, 정조에게 이곳은 효의 마음을 담은 공간이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장소로,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의 빈번한 화성 행차는 아들로서의 못다 한 도리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화성행궁은 정조의 예(禮)와 악(樂)을 통한 백성 교화의 본보기가 되는 문화적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수많은 시를 지었고, 학자들과 문학적 교류를 나누었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화성행궁에서 성대하게 거행하며 백성들의 축제로 확장한 것은 효와 문화를 결합한 대표적 사례였다.

## 인간 정조의 이상과 좌절

화성행궁에는 정조의 다층적 서사가 스며들어 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한 인간으로서 정조의 내면과 군주로서 책임감이 교차하며 형성된 복합적 이야기이다.

정조는 화성행궁을 통해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다. 신분제의 벽을 허물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며, 상공업을 발전시켜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다. 화성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혁신적 사고와 실용주의적 접근은 이러한 꿈의 구현체였다. 행궁의 건축 양식 자체가 기존 궁궐 건축의 관례를 벗어나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는 그를 위대한 개혁 군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복잡한 감정들을 절대 해소할 수 없었다. 현릉원 참배를 위한 행차,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각종 의례들, 그리고 행궁에서 지은 수많은 애뜻한 시편들이 이러한 서사를 뒷받침한다. 왕으로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기존 지배층의 강한 저항, 재정적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짧은 생애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정조는 중앙이 아닌 화성행궁에서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보내야 했던 것일 수 있다.

## 2세기를 넘어 다시 피어나는 꿈

이제 우리는 정조가 꿈꾸는 세계에 살고 있는가. 이 나라는 과연 강건해졌으며 백성은 평안한 것인가. 그가 믿었던 예(禮)와 악(樂)의 힘으로 그 질문을 다시금 묻는 시간이 돌아왔다.

다가온 10월 경기도무용단의 <찬연의 행궁>은 정조의 이러한 다층적 서사를 무용으로 재해석해 무대에 올린다. 정조가 사신을 만나고 업무를 보던 화성행궁 유여택을 무대로 한 실경공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서사가 이미 의미 깊고 완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조선의 역사적 사실과 21세기 현대 무용의 표현 기법이 만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창조해 내고, 화성행궁의 건축미와 무용의 예술적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 장면을 연출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역사와 예술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이다.

200년을 훌쩍 넘긴 세월에도 화성행궁에 담긴 정조의 의지와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들이를 나온 가족에게도,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도, 행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전 세계 관광객에게도 정조의 이상과 꿈은 현재진행형이다.



수원 화성행궁 유여택. 사진: 국가유산청.



수원 화성행궁 복내당 처마. 사진: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을 춤추게 하라 춤으로 피어나는 천년 경기

김경숙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

김경숙 예술감독은 전통 춤을 쌀밥에 비유했다. 유구한 세월 이 땅의 허기를 채워온, 여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고 사라져서도 안 되는 쌀밥. 경기도무용단의 수장으로 그녀는 좋은 쌀을 골라 밥을 짓는 마음으로 춤을 짓는다. 이렇게 31개 시와 군에 펼쳐진 역사와 문화가 춤 사위에 흘러 흘러 예술에 대한 경기도민의 시장기를 채우고 있다. 이제 곧 정조대왕이 집무를 보던 행궁 유여택(維與宅)이라는 역사의 현장에 춤 한 상이 차려진다. 30년 전통의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으로 경기도의 전통과 예술을 춤에 담아내는 김경숙 예술 감독을 만났다.

글. 이재영 | 사진. 김경수(싸우나스튜디오)



**Q. 그간 기획공연 <경기회연>, <세종>, <찬연>, <영원의 춤 유산의 빛>, 또 토요상설공연 <문화유산을 춤추다>까지 경기도민들에게 전통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춤으로 전하셨죠. 경기도무용단의 수장이 되셨던 첫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기대와 포부로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는 천년의 역사만큼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그 서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기도무용단만의 매력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술감독으로 오면서 기대가 컸고, 지금도 설레는 마음으로 한 작품 한 작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처음 직무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문화유산을 춤추게 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그 캐치프레이즈대로 단원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경기도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내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경기도 무용단이 전통에 근간을 둔 정체성이 있는 무용단으로 더 성장해 나가길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만의 서사를 발굴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곳, 행궁의 유여택에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날 텐데요. 바로 <찬연의 행궁>이죠. 이 작품은 지난해 시즌 레퍼토리였던 <찬연>을 바탕으로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2024년 6월이죠. 경기아트센터 재단법인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사극 드라마 형식의 무대 작품으로 <찬연>을 올렸어요. 처음엔 20년간 찬란하게 빛나는 경기도무용단의 레퍼토리를 모아서 보여줄까 했어요. 여러 아이디어를 내던 중에 지난 것을 간추리기보다 새로운 서사를 등장시키자고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렇게 서사자를 등장시켜 춤 속에 담긴 스토리를 알려주는 ‘사극 춤 드라마’라는 형식을 기획하게 됐고, 조선시대 찬란한 시절의 중심에 있던 불특정한 ‘왕’이라는 상징을 등장시킨 <찬연>이 만들어졌습니다. 국악인 이봉근이 노래하는 임금 역할을 맡아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공연의 묘미를 더했죠. 새로운 시도였는데 반응도 좋고, 저희도 아주 만족스러운 공연이었어요.

**Q. 몸의 언어가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 반가운 공연이었겠군요. 이번 <찬연의 행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찬연>이 상징적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찬연의 행궁>은 정조대왕에 포커스를 맞춰 구성됩니다. 이 행궁이 정조대왕의 유산이자 흔적이잖아요. 이야기를 특정 인물에 집중해 드라마 요소를 더하고, 실경 유여택을 배경으로 공간을 이동하고 확장했죠. 사극 춤 드라마라는 형식을 유지하면서 2막에서 3막으로 앞뒤 내용을 보강해 더욱 짜임새 있는 공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조대왕이 예술 관련 책을 편찬하시는 등 워낙 문무를 겸비한 분이랄까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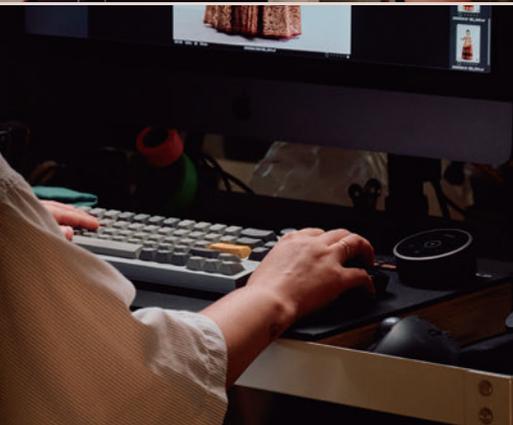
이번 공연에서는 왕께서 장용영 무예 권법수련무를 지켜보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민심을 살피기 위해 야행을 떠나는 장면,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효심, 백성을 위한 태평성세의 염원을 춤과 노래로 이야기하며 끝이 나죠.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다른 콘텐츠에는 없는, 정조대왕이 사용하던 공간에서 펼쳐지는 춤과 음악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Q. <찬연의 행궁>은 정조대왕의 찬연한 시간을 그가 머물렀던 특별한 공간에서 공연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 유여택이었나요? 이 공간에서 공연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앞마당까지 무대를 크게 만들어서 마당을 빙 둘러 ㄷ(디근자)형의 객석이 만들어집니다. 마당과 건물을 오가면서 춤과 노래가 진행될 텐데, 정말 눈앞에서 생생하게 공연을 보실 수 있어요. 이곳 유여택은 정조대왕이 화성행궁에 머물 때 집무실로 썼던 곳입니다. 만백성의 군주로서 깊은 고뇌와 성찰이 서린 곳이에요. 정조대왕은 스스로를 만 개의 시냇물에 비치는 밝은 달이라고 칭했죠. 그만큼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대하겠다는 통치 철학을 가졌던 분이예요. <찬연>의 핵심이 바로 조선 왕들의 이러한 통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으로 집무 공간인 유여택을 선택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궁에 와서도 불철주야 나랏일에 매달렸던 그 공간이 이곳이니깐요.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Q. 관객들은 공연을 통해 정조대왕이 실제 머물렀던 곳에서 다시 정조대왕을 만나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겠군요.**

현장성이 대단할 겁니다. 무용수의 움직임에 따라 펼쳐지는 의상의 사각거림까지 들릴 겁니다. 무대와 객석의 간격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정도예요. 자연광과 달빛 아래서 춤사위, 몸짓 하나하나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최고의 몰입형 공연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즈넉한 유여택에 드리우는 가을 햇살과 한밤의 청량한 바람 아래 아름다운 춤으로 힐링 받길 바랍니다.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라고 장담해요. (웃음) 흔치 않은 경험이 되실 테니 많이 찾아주세요.

**Q. 외국인 관객에게도 잊지 못할 K-문화의 경험이 되겠군요. 감독님께서 공연을 만드실 때 문화적,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크실 텐데요. 경기도무용단의 콘텐츠가 관광과 교육에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경기도무용단의 공연은 텍스트로만 보던 역사의 한 부분을 온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경기도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했다는 콘텐츠 자체의 의미도 크고요. 지금 시점은 이런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며 그것을 동시대 언어로 구현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아주 중요하죠. 과거에 묶인 전통이 아닌

현대의 시선과 현재의 언어로 확장해야 하죠. 이러한 고민 끝에 경기관광공사, 수원화성문화재 주최인 수원시 등 여러 관과 민이 협력해 경기도만의 문화를 브랜드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찬연의 행궁>도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주요 레퍼토리로 가져가는 등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 경기도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죠. 기관과 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훌륭한 가치를 지닌 콘텐츠들이 오래도록 사랑받았으면 해요.

**Q. 감독님께서 경기도무용단의 책임자로 어떤 목표를 가지십니까?**

경기 천년이라는 문화유산으로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의 감각이 녹아 있는 작품을 꾸준히 만들고 싶습니다. 단 한 번 반짝 하는 공연이 아니라 발전하면서 이어지는 공연들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연말이면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추석을 앞둔 가을에 <찬연의 행궁>을 보는 것이 하나의 리추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각 계절마다 꼭 봐야 하는 경기도무용단만의 대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이고요. 또 경기도무용단이 30년 이상 됐는데 단원들의 기량이 정말 탄탄합니다.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작 무용을 많이 하는데 표현이 매우 뛰어나죠. 자식 자랑하는 엄마 같겠지만 어느 단체보다 전통 춤을 표현해 내는데 우리 경기도무용단이 단연코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 목표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경기도민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셨는데, 아직 공연을 보지 못한 또 곧 공연을 보실 경기도민에게 경기도무용단의 공연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연을 보면서 숨이 멎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전통 춤을 다시 보게 됐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여주실 때면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작년에 토요일마다 상설무대가 열렸는데요. 공연이 끝날 무렵 가끔 마이크를 잡고 각 한 분이 무용수 10명의 팬이 되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기량, 최상의 에너지로 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은 공연을 할 테니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 가득한 요즘 우리 무용단이 펼쳐내는 춤사위가 분명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찬연의 행궁>은 공간이 주는 의미와 자연이 선사하는 편안함으로 더욱 의미 있는 관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기쁨과 힐링을 드리는 경기도무용단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STAGE

## PREVIEW

- ① 차세대 국악 명인, 5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젊은 명인 : Young Virtuoso>
- ② 두 거장의 영혼이 깃든, 건반 위의 축제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라벨 150 & 쇼스타코비치 50
- ③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과 울림의 무대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 <불멸>

## REVIEW

- ① 광복을 향한 노래, 국악관현악·합창으로 녹아들다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 ② 강렬함으로 완성된 가을의 낭만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
- ③ 투명하게 빛나는 여름 향기  
Classic of My Playlist <음, 향>





# 차세대 국악 명인, 5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젊은 명인 : Young Virtuoso>

치열한 경쟁 속에 5명의 젊은 명인이 탄생했다.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 경기국악원 국악당에서는 이들이 이끌어갈 한국 전통음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주최하는 <젊은 명인: Young Virtuoso>, 단순한 협연을 넘어 차세대 인재들의 빛나는 재능과 열정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것이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PREVIEW

1

# YOUNG VIRTUOSO



## 21:1의 치열한 경쟁을 거친 이번 시즌 원픽의 주인공들

이번 <젊은 명인: Young Virtuoso> 무대에 오르는 연주자들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발되었다. 무려 21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들은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의 국악기 각 분야를 대표한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올해 6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45일간 협연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악관현악단과 협연이 가능한 젊은 연주자들을 발굴했다. 여느 때보다 우수한 실력의 신청자가 많았던 만큼,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공연에서는 25현 가야금 협주곡 <소나무>, 거문고 협주곡 <섬화>, 대아쟁을 위한 국악협주곡 <역조>, 해금협주곡 <혼불 V-시김>, 개량 대금 협주곡 1번 <풀꽃> 등 다채로운 국악관현악곡들이 총 60분간 연주될 예정이다. 전통 국악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담은 곡들로, 관객들에게 국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달할 것이다. 특히 이 협연곡들은 모두 선발된 연주자들의 자유 선택으로 이루어져, 젊은 명인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올려놓는 무대가 될 것이다.

## 연주자들의 개성과 창의성에 깊이를 더하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1996년 창단된 경기아트센터 소속의 한국 전통음악 관현악단으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나위'라는 우리나라 전통음악 형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나위는 여러 악기가 즉흥적으로 어우러져 연주하는 것으로, 연주자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한다. <젊은 명인> 공연의 의도도 그렇다. 젊은 연주자들이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전통의 틀 안에서 개성을 발휘하고, 개별적인 재능들이 아름다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젊은 명인: Young Virtuoso>에서 5명의 연주자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연주할 곡들은 전통 국악기의 가능성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작품들이다. 25현 가야금이나 개량 대금과 같은 악기를 선택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그대로 살렸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젊은 명인> 공연을 통해 이러한 실험적 정신과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음악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



### **K-음악의 정수를 이룰 전통과 미래가 만나는 순간**

서구 음악과 K-pop이 대세를 이룬 현실에서, 국악 분야의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만나고 지지하는 일은 매우 소중하고 귀하다. 그렇기에 더욱 11월의 세 번째 목요일 저녁 경기국악원에서 펼쳐질 <젊은 명인 : Young Virtuoso>은 한국 전통음악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다섯 명의 젊은 연주자들이 보여줄 패기 넘치는 연주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깊이 있는 협연은 관객들에게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어쩌면 이번 공연이 앞으로 한국음악을 이끌 한 거장의 출발을 직접 목격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전통의 깊이와 젊음의 열정이 만나는 특별한 밤, <젊은 명인: Young Virtuoso>을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란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젊은 명인 : Young Virtuoso>**

일시 11월 20일(목) 19:30  
장소 경기국악원 국악당  
금액 전석 3만 원

# 두 거장의 영혼이 깃든, 건반 위의 축제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라벨 150 & 쇼스타코비치 50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이 경기아트센터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라벨 150 & 쇼스타코비치 50(Ravel 150 & Shostakovich 50)'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진행되어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애 전부를 예술혼으로 뜨겁게 불태웠던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과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mitri Shostakovich, 1906-1975)의 명곡들이 드디어 우리를 찾아온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 MAURICE RAVEL & DMITRI SHOSTAKOVICH

PREVIEW  
②

라벨 탄생 150주년이자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을 기념하며

2025년은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의 탄생 150주년이자, 러시아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mitri Shostakovich, 1906-1975) 서거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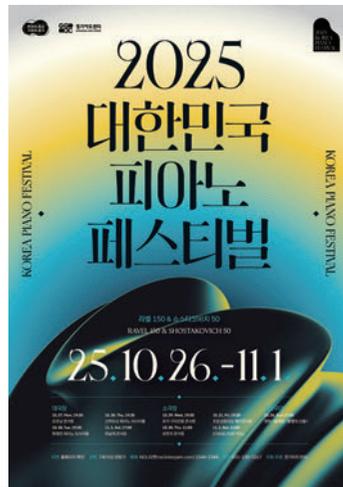
라벨은 정교한 화성과 혁신적인 관현악법의 귀재로 20세기 프랑스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같은 선율이 무한 반복되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볼레로'와 앙코르로 사랑받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같은 작품으로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작곡가다. 반면 쇼스타코비치는 소비에트 체제에서 정치적 압박과 예술적 신념 사이에서 고뇌하며, "내 교향곡은 묘비다"라고 표현할 만큼 절절한 감정을 음악에 담아낸 비운의 천재다.

## 7일의 여정, 8번의 무대

이번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은 총 7일간 8회의 공연으로 구성되며,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소극장, 열린무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정통 클래식부터 재즈 편곡, 시민 참여 무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는 두 거장의 음악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10월 27일 지휘자 김선욱이 이끄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박종해가 함께하는 <오프닝 콘서트>로 이번 페스티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 2번>,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과 <라 발스>로 구성되어 두 거장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어, 28일에는 피아니스트 원재연의 독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에릭사티 서거 100주년 기념 의미로 1부에서 에릭사티의 대표곡 <짐노페디>와 <그노시엔>, 라벨의 <소나티네>, 그리고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까지, 근현대 피아노 레퍼토리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클래식 음악 초심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적극 마련하였다. 10월 29일 소극장에서 열리는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는 뉴에이지 음악을 통해 클래식에 친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쉽게 다가갈 기회를 제공하며, 30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브런치콘서트>는 피아니스트 송영민의 해설과 함께 다과를 즐기며 라벨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30일 저녁에는 <신박 듀오 피아노 리사이틀>에서는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모차



오프닝콘서트 박종해.



원재연. ©Shin-joong Kim.



오프닝콘서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유키 구라모토 © Sangwook Lee



조윤성트리오.



신박듀오.



피날레콘서트 이진상. ©Hyemi Kim.



피날레콘서트 한지호.

르트의 작품들을 통해 앙상블의 묘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10월 31일 <조윤성트리오 재즈콘서트>는 라벨과 쇼스타코비치의 곡을 재즈 편곡으로 재해석하여,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오전 11시 소극장에서는 <STAGE FOR YOU> 공연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들의 뜻깊은 무대가 펼쳐진다.  
 <피날레콘서트>는 오후 5시 대극장에서 김대진 지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한지호, 이진상의 협연으로 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완성한다. 이날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마지막 연주곡으로 대미를 장식할 라벨의 <볼레로>가 벌써 기대된다.

**국내 대표 피아노 단일 악기 축제이자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축제로**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은 피아노의 멋진 선율 아래 음악이 갖는 보편적 가치와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공연에 1만 원 좌석을 마련한 '만원의 행복권', 무료로 진행되는 <STAGE FOR YOU> 등으로 관람 부담까지 낮춰, 클래식 애호가든 물론 음악에 처음 발을 들이는 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을 한껏 즐겨보자.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대극장**

- 10.27. Mon. 19:30 오프닝콘서트
- 10.28. Tue. 19:30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 10.30. Thu. 19:30 신박듀오 피아노 리사이틀
- 11. 1. Sat. 17:00 피날레콘서트

**소극장**

- 10.29. Wed. 19:30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10.30. Thu. 11:00 브런치 콘서트
- 10.31. Fri. 19:30 조윤성트리오 재즈콘서트
- 11. 1. Sat. 11:00 STAGE FOR YOU

**열린무대**

- 10.26. Sun. 17:00 영화 <볼레로: 불멸의 선율>



공연별 예매

# 시대를 초월하는,

## 감동과 울림의 무대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 <불멸>

계절의 색이 짙어지는 10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걸작들로 무대를 장식한다.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 <불멸>'은 24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과 2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이어 펼쳐질 예정이다. 김선욱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베토벤 교향곡 4번과 5번이 전하는 거장의 예술적 에너지와 인간 정신의 위대한 힘을 느껴보시길 바란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IMMORTALITY  
LUDWIG VAN BEETHOVEN



## 200년을 뛰어넘어

### 변함없이 사랑받는 베토벤의 명곡들

1부에서 연주될 베토벤 교향곡 4번은 흔히 '숨겨진 보석'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교향곡 3번 <영웅>과 5번 <운명> 사이의 이 작품은 밝고 경쾌한 정서와 함께 고전적 균형미가 두드러지는 곡으로 평가받는다. 활기찬 전개 속에 생동감 넘치는 이 음악은 베토벤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며, 김선옥 예술감독과 경기필의 세련된 해석으로 더욱 빛을 발할 예정이다.

특히 1악장의 신비로운 서주부에서 시작되어 활기찬 알레그로로 전개되는 구성은 베토벤 특유의 극적 대비를 보여준다. 2악장의 서정적 아다지오는 깊은 명상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3악장의 경쾌한 스케르초는 생동감 넘치는 리듬으로 청중을 사로잡는다. 마지막 4악장은 화려한 피날레로 전체 작품을 장엄하게 마무리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베토벤이 고전파의 형식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 언어를 구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낭만파로 향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2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연주한다. 1808년 초연된 이 작품은 베토벤의 대표작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교향곡 중 하나다.

'다다다단'으로 시작되는 <운명>의 강렬한 첫 네 음의 동기는 전 악장에 걸쳐 다양하게 변주되며 작품의 통일성을 이룬다. 1악장에서 제시된 어둠과 투쟁의 정서는 2악장의 서정적 안식처를 거쳐, 3악장의 음울한 분위기로 이어진다. 그러나 마지막 4악장에서는 극적 전환을 통해 어둠을 뚫고 나오는 승리의 환호가 울려 퍼진다.

이 작품은 청각 장애라는 시련을 겪던 베토벤이 인간의 의지를 음악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악장에서 폭발하는 에너지와 장엄한 승화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로 나아가는 인간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멸>이라는 이번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의 제목은 베토벤 음악이 지닌 시대 초월적 가치를 상징한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베토벤의 음악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 정신,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예술의 힘이 바로 그것이다.

김선옥 예술감독 취임과 함께 경기필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마스터즈 시리즈는 경기필이 추구하는 예술적 비전을 보여주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음악의 핵심 레퍼토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기획이다. 2025/26 시즌에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에서부터 멘델스존, 브람스, 차이콥스키, 말러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가 계획되어 있어, 경기필의 레퍼토리 확장과 예술적 성숙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 <불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술이 지닌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경기필의 한층 무르익은 연주로, 명곡이 전하는 진정한 위로와 감동에 저절로 감탄이 터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 <불멸>

일시 10월 24일(금) 19:30 / 10월 25일(토) 17:0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금액 장소별 상이  
 문의 031-230-3314

PREVIEW





# 광복을 향한 노래, 국악관현악·합창으로 녹아들다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국악원에서 부산까지, 전국의 국악 단체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하지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울려 퍼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광복 80주년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다.

글. 송현민(음악평론가, 월간 <객석> 편집장)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 REVIEW

①

## 경기시나위가 전한 뜨거움

8월의 공연계는 그 어느 해보다 광복 기념의 의미로 뜨거웠다. 국립국악원은 기획공연 <빛을 노래하다>를 열어 화합·기억·희생·소망·미래·빛이라는 키워드로 레퍼토리를 재배치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올해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에서 국악 칸타타 <흙; 들꽃처럼, 불꽃처럼>을 올려 여성 독립운동가의 서사를 조명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도 같은 시기에 <광복의 빛을 넘어>라는 기념음악회를 진행했다. 국립과 지역 예술단체가 비슷한 시기에 8월의 의미를 짚어보는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광복'이라는 공통 소재 속에서 악단별 개성을 드러낸 시간이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는 '기념'이라는 형식을 넘어, 잊힌 노래의 원형을 현재와 만나게 한 순간이었다. 8월 23일 김성진 예술감독이 이끄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수원시립합창단과 경기도극단 단원들이 한 무대에서 만났다. 이신우의 초연곡 <빛이 된 노래>가 이들의 만남을 이끌었다.

### 잊힌 노래의 귀환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의병과 독립군들이 불렀던 <새야 새야>, <의병창의가>, <사고우>, <독립군가>, <영웅추도가>, <한반도가>, <압록강 행진곡>을 간단한 구성으로 선보였다.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민경찬 교수(근대음악사 연구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가 기획 단계부터 함께 하며, 이러한 노래에 담긴 사료적 가치와 역사적 고증을 더했고, 역사적 기록과 학술적 증거들이 공연장에서 배포된 프로그램 북에 든든하게 실렸다. 1부에는 악단이 오르지 않고, 악단원이 연주하는 소금·해금·대피리·생황 등의 악기만 각 노래에 곁들여졌다. 역사적 상상력을 덧대어보면 독립군들이 실제로 휴대했을 법한 작은 악기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부는 국악관현악과 합창이 합세한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가 올랐다. 약 45분간 진행된 곡은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다.

곡은 1장 <노래, 짓다>, 2장 <어둠속으로>, 3장 <늑두꿇, 울다>, 4장 <의병과 독립군>, 5장 <꽃이 필 때>, 6장 <어둠의 끝 자락>, 7장 <노래, 빛이 되다> 순으로 전개됐다. 1장 <노래, 짓다>에서는 근대기 조선의 궁궐에서 연행되었을 법한 정악풍을



시작으로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온다. 이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황제>의 선율이자, 과거 오스트리아의 국가(國歌)인 <신이여 황제를 보호하소서>였다. 전반적으로 이신우는 국악관현악과 합창이라는 재료 위에 '모태가 되는 노래'들을 투명하게 엮고, 그 주변에 국악적 분위기와 서양음악적 기법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소리의 끈으로 관현악단과 합창단을 묶었다.

더불어 이번 초연작을 통해 그간 이신우가 발표해 온 작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서양음악을 전공한 이신우의 국악 창작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여민락 교향시>(2019), <적벽>(2020), <대지의 시>(2022) 등을 통해 한국적 소리와 종교적 심상을 탐구해 가며 방점을 찍어나가고 있다. 특히 원곡을 토대로, 작곡가로서 새 선율을 붙여넣어 색다른 관현악 레이어를 만드는 방식을 보여준 전작처럼, 이번 <빛이 된 노래>에서도 도산 안창호의 <사고우>나 <거국행>, <한반도가>를 국악기와 목소리가 대대적으로 합을 이룬 칸타타 양식에 녹여 넣었다. 특히 관현악과 인성은 어색한 <국악풍> 모사로 흐르지 않았고, 국악기 고유의 음색·장식음을 동력 삼아, 합창 텍스트의 운율과 호흡을 돋보이게 했다.

### 국악관현악과 합창이, 하나의 몸으로

김성진은 종합적 구성을 선호하는 지휘자이다. 음악적으로는 국악관현악단이 부여잡고 있는 국악은 물론 장외로 시선을 돌려 거대한 합창단이나 파이프오르간과 만나게 하는 접점의 기획력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험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청주시립국악단 시절을 거쳐 국립국악관현악단 재직기에 더욱 다양한 실험을 거쳐 그만의 기획 메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창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여민락>을 비롯해 <어부사시사>, <천년의 노래, REBIRTH>, <시조 칸타타> 등 대표작도 여럿인데, 이러한 기획과 구성은 물론 지휘에

서도 이러한 '결합 장르'에 대한 장악력이 그 어떤 지휘자보다 뛰어나다.

<빛이 된 노래>는 관현악단을 구성하는 여러 악기나 합창의 여러 성부나 솔리스트를 접붙인 방식보다는, 관현악단과 합창단이라는 소리군(郡)의 거대한 두 덩어리를 하나로 뭉치는 방식이 돋보였는데, 김성진의 지휘는 두 군(郡)의 균형감이 잘 잡히도록 했다. 한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그간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입은 공연을 통해 유연성은 물론 작품에 대한 적응력과 연주력의 온도가 올라가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 악단이 지닌 여러 표정과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끔 '부분'(파트나 독주)을 돋보이게 하는 현미경적 작곡법도 이번 곡에 녹아들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사료의 사실성, 음악의 추상성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김성진 예술감독 취임 후 '경기비주열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대 영상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음악이 귀로 직격하는 '청각예술'이라 할지라도, 일상보다 오감의 민감성을 더욱 건드리는 공연장에서 '보이는 것'은 음악감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에 선보인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방의걸 화백의 화폭을 무대 뒤에 병풍처럼 드리워진 화면에 띄우며, 한 곡 한 곡을 음악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곱씹어 듣고 보도록 했다. 당시 방의걸의 화폭은 추상적인 동양화풍이었는데 풍경을 치밀하게 묘사하지 않은 추상적 선, 뚜렷한 대상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림 속 대상을 상상력과 함께 헤아리게 하는 그 묘함이 음악이 가진 추상적 성격과 묘한 상보 관계와 쌍곡선을 그려나갔다. 그로 인해 재연곡들도 초연곡처럼 새롭게 다가온 순간이었다.

이번 <빛이 된 노래> 2부에서는 무대 뒤에 사진들이 음악과 함께 흘렀다. 독립운동가들과 현장을 담은 흑백 사진들로, 그들의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1부에 등장한 경기도극단원들도 시대적 고증으로 정련된 듯한 당시의 복장을 하고 나와 사실성을 높였다.

이처럼 사진과 의상 등을 통해 치밀한 고증과 역사적 감각의 순도를 투명하게 제시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실성'이 음악과 예술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추상성'과 그 즐거움에 아쉬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의 아픔과 극복의 의지를 겪어볼 수 없는 지금이기에, 우리는 당시를 상상하고 추체험하면서 더욱더 감정 몰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농도와 비율 조절은 차후에 등장할 또 다른 공연으로 기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또 다른 동력을 기대하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며, 동시에 국악관현악 탄생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65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면서 이 땅에는 '국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 국악관현악단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다.

관현악의 시간은 꾸준히 동력을 발굴해 가고 있다. 그 동력은 지휘자, 협연자, 작곡가 등 다양하다. 동력의 탐색전에서 중요한 것은 기획력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관현악단과 합창단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동력을 '교향적 칸타타'라는 이름으로 맞물리게 했다면, 다음에는 더욱 섬세한 설계가 곁들여지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음악적 자원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있는 경기민요를 이용한 '경기조 칸타타'라든지, 12명의 젊은 작곡가가 새로운 12잡가를 선보인 '12작곡가'의 전례를 토대로 여러 작곡가가 모인 일명 '모자이크 칸타타'를 만든다든지, 동양풍의 영상적 콘텐츠와 어우러진 전작에서의 감각을 다시 길어 올려 '영상적 칸타타' 등. 모든 공연은 완료가 되는 지점에 또 다른 숙제를 낳는다. 이번 무대도 서지뿐만 보던 사료에 소리의 빛을 쬐어 흑백 사진에 다양한 색을 불어 넣었고, 국악관현악과 합창의 교각에서 메워야 할 부분을 확인함과 동시에 또 다른 과제와 숙제를 부여하며, 국악관현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송현민

음악평론가, 월간 <객석> 편집장. '한반도의 르네상스'를 주장했던 음악평론가 박용구론으로 제13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했고, 충실한 '기록'이 미래를 '기획'하는 자료가 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 강렬함으로 완성된

## 가을의 낭만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V  
<가을에는 브람스>

가을의 초입, 9월 18일 저녁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예술감독 김선욱의 지휘 아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브람스 교향곡 4번과 이중 협주곡을 깊이 있는 해석과 함께 선보였다. 므라빈스키의 “강렬하지 않은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명언처럼, 경기필만의 묵직하고 강력한 사운드로 브람스의 정수를 담아낸 시간이었다.

글. 유혁준(음악칼럼니스트, 클라라하우스 대표)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REVIEW  
②



**음악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음악은 인간의 삶에 있어 제1순위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음악이 없다는 것 또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음악의 힘을 믿는다.**



므라빈스키의 어록 중에서

영화 25도의 흑한이 엄습했던 2003년 1월 6일 오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페트로스카야 나베르주나야 3번지. 네바 강변에 자리 잡은 구소련 시절에 지어진 작은 아파트. 이 단출하고 소박한 집은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20세기 세계 지휘계 최고의 거장이었던 예프게니 므라빈스키(1903~1988)가 타계할 때까지 살았던 기념비적인 공간이다. 이곳에서 부인 바빌리나 여사(1928~2021)를 세 번째로 만났다. 1959년 므라빈스키와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서방 연주 여행 때 음반 녹음한 차이콥스키 교향곡에 대한 보답으로 DG음반사에서 선물로 보내온 그랜드 피아노와 유품들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부인은 1961년부터 27년 동안 여성으로서 최초로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수석 단원을 역임했던 위대한 예술가다. 바빌리나 여사는 다시 한번 힘주어 므라빈스키의 어록을 강조했다.

“나는 언젠가 음악을 들을 때 벼락이 치는 것과 같고, 해머로 무엇인가를 강하게 때리는 것과 같은 강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바로 이렇게 예술이란 강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예술이라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술에 대한 결론이며 청중에게 그리고 연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빌리나 여사가 남편의 말을 되풀이한 것처럼 예술은, 음악은 강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한낱 아름다운 소리와 음향에 불과한 것이다. 2025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회를 거듭할수록 그 강렬함이 배가되는 느낌이다. 20세기 과거 거장 지휘자들의 시대와 달리, 세련되고 정확하며 날렵한 템포로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오케스트라의 추세에 맞추면서도 때로 광폭함과 솟구치는 다이내믹의 변화는 경기필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하게 했다. 예술감독 김선욱 자신만의 해석과 악단 조율이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 1월 6일 므라빈스키 자택의 유품. 사진: 필자 제공.

### 브람스 교향곡 4번, 30변주의 대서사시

9월 18일 저녁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마스터즈 시리즈’ 네 번째 순서는 <가을에는 브람스>였다. 3회 시리즈 공연에 비해 객석은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찼다. 브람스 교향곡 4번 4악장은 중남미에서 스페인으로 건너와 바로크 시대에 자리 잡은 춤곡 <파사칼리아>가 30회나 옷을 갈아입으며 다채롭게 진행되는 변주곡이다. 마치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나 <샤콘느>와 같이 30개 변주가 우리 인생을 통찰하는 대곡이다.

4악장을 앞두고 긴장해서였을까. 도입부 8마디 주제부에서, 상승하는 악기 플루트, 오보에, 트롬본과 하강하는 악기 클라리넷, 바순, 콘트라바순, 호른이 서로 어긋나며 악기 간 밸런스가 흔들렸다. <파사칼리아>라는 같은 형식이지만 각 변주는 다른 내용으로 독자성이 도드라져서 이를 하나로 통일하며 30변주를 헤쳐가기는 세계 정상급 악단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날 공연의 버팀목 가운데 하나인 팀파니가 5마디부터 등장해 우르릉거리는 타격을 가하며 합세해 1변주로 들어서면서 서부터 점차 안정을 찾았다. 2변주 목관의 레가토는 애절하기까

지 했다. 바이올린이 뿜어내는 소리에 지지 않고 주제를 읊는 첼로, 더블베이스, 그리고 여기에 대비되는 관악기의 움직임은 4~6변주에서 돋보였다. 바이올린과 목관이 대립하는 7변주, 숨 고르기에 이어 치고 나가는 9변주는 광기(狂氣)마저 느껴졌다. <엘레지> 즉 <비가(悲歌)>를 노래하는 10~12변주는 느낌의 미학이었다. 모처럼 밝은 E장조의 13변주는 클라리넷과 오보에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광명을 비추었다.

14변주는 <코랄>과 <사라방드> 춤이 결합한 4악장의 백미다. 므라빈스키가 "따스한 음색으로... <코랄>은 장엄한 곳이니까 엄격하게, <사라방드>는 이음줄을 더 따뜻한 톤으로 하라"고 몇 번이고 지적했던 것을 김선옥은 알았을까. 지휘봉을 내려놓고 왼손을 휘휘 휘저으며 물결치듯 파고를 일으키며 이 천국과도 같은 변주를 연금술사처럼 풀어갔다. 4분음표도 2분음표처럼 충분히 끌고 갔고, <사라방드>의 두 번째 박 악센트도 충실히 지켜졌다. 소름이 돋았다. 이는 15변주도 마찬가지였다. 1~3변주와 같은 형식이지만 24~26변주의 폭발력은 실로 강력했다. 마침내 30변주를 거쳐 코다에 이르러,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쏟아붓고서야 김선옥의 지휘봉은 멈췄다.

1악장 도입부의 전곡을 관통하는 모티브는 약음이었지만 안으로 타오르지 못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받쳐주는 저음 현악기도 다소 불안했다. 이른바 '저항 모티브'를 거쳐 첼로와 호른이 연주하는 2주제로 들어가며 안정감을 찾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공부한 호른 수석 알렉세이 나초브카는 황진하 팀파니 수석과 함께 이날 공연의 일등 공신이였다. 2악장, 고대 그리스 프리지아 선법을 적절하게 노래하는 나초브카의 호른은 제시부 클라리넷의 1주제로 발전하는 밀거름이 되었다. 또한 바이올린의 확장하는 셋잇단음표는 얼마나 찬란했던가! 여기에 언제나 듣직한 경기필의 첼로 파트가 펼쳐가는 2주제는 브람스 음악의 정수(精髓)를 보여주었다. 더블베이스와 바이올린까지 합세한 재현부 2주제는 망망대해가 그대로 반추되었다. 깊고 또 깊었다. 그리고 굴곡졌다.

### 세계적 거장들이 한마음이 된 무대

경기필이 매 콘서트마다 첫 곡으로 올리는 우리 작곡가의 신작 초연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젊은 작곡가 손일훈의 <팡파레>는 짧은 곡이었지만 부제 'sempre in avanti'와 같이 항상 앞으로 진군하는 음형들이 각양각색으로 표현되었다. 새로운 작품에 최선을 다해 작곡가에 경의를 표하는 경기필의 아카데미한 자세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은 클라라 주미 강과 지안 왕의 협연으로



2003년 1월 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므라빈스키의 집 거실의 피아노와 유품 그리고 미망인 바빌리나 여사. 사진: 필자 제공.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다. 2005년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처음 만났던 지안 왕은 어느새 20년이 흘러 초로의 신사가 되어 있었다. 1악장 시작과 함께 둔중하게 치고 나오는 첼로의 카덴차는 세월의 퇴적이 느껴지는 거장의 숨결이었다. 뒤이어 주미 강의 바이올린은 이제 뒤질세라 힘찬 보잉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뿐만 아니었다. 경기필은 교향곡에 독주 악기가 가미된 것 같은 브람스 협주곡의 본질을 꿰뚫었다. 웅혼하고 때로 섬세하게 감정의 파고를 넘었다.

1853년 9월 30일 브람스가 뒤셀도르프에서 클라라 슈만을 만난 후 그의 모든 작품은 클라라를 염두에 두게 된다. 2악장도 마찬가지다. 첼로는 브람스요, 바이올린은 클라라다. 지안 왕과 주미 강은 2악장의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합일(合一)하는 앙상블로 명연을 이끌어나갔다. 왜 이들이 세계 정상에서 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중간부가 끝나갈 즈음 첼로의 트릴에 얹히는 바이올린의 더블스토핑은 낭만주의 음악의 극치를 맛보게 했다.

언제부터인가 경기필 연주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은 가슴이 벅차오른다. "강렬하지 않은 예술은 예술이라 할 수 없다"라는 므라빈스키의 명언은 이번 경기필의 브람스에 잘 어울린다. 경기필은 경기필이어야 한다. 깔끔하고 날렵한 테크닉을 중시하는 요즘 오케스트라의 행보를 따를 게 아니라 경기필은 강렬하고 묵직한 '김선옥표 사운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밀월은 필수적이다.

### 유혁준

음악칼럼니스트이자 클래식 음악 콘텐츠 기획자이며, 클라라하우스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창작자 지원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 투명하게 빛나는 여름 향기

## Classic of My Playlist <음, 향>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이모가 건넨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먹으며 유년 시절 콩브레 마을에서의 기억을 되살린다. 현재에 머물러 있던 그를 잊고 있었던 과거의 세계로 이끈 건 홍차의 향기, 마들렌의 맛이였다.

지난 8월 23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펼쳐진 <음, 향> 무대는 그 향기를 소리 속에 녹여낸 시간이었다.

글. 국지연(음악 칼럼니스트)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 소리와 향기의 새로운 대화

경기아트센터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Classic of My Playlist'의 세 번째 무대였던 <음, 향>은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선곡한 작품으로 진행되었다. 고전을 쉽고 새로운 시선을 통해 다채롭게 소개하고자 기획된 공연인 만큼 청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아티스트와 기획자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진 시간이었다. 소리와 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던 이날의 무대는 사람의 많은 감각 중에서도 후각, 향기가 음악 작품의 본질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물하기도 했다.

경희대 음대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서초문화재단 '서초 M.스타즈' 4기 음악감독과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시리즈 진행자로 꾸준히 관객과 만나온 피아니스트 김태형은 이날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다양한 작품을 선곡하여 곡에 대한 설명과 에피소드를 나누며 편안하게 진행을 이끌었다. 김태형과 함께 무대를 빛낸 이는 퍼퓸 테일러 배사라였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녀는 한국 최고의 퍼퓸 테일러로 세계 최고의 조향 학교 GIP의 아시아 대표를 맡고 있으며 프랑스, 중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조향컨설턴트로 활동하며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온 향 전문가이다.

김태형과 배사라가 함께 만들어낸 이 특별한 무대는 소리와 향기를 통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다양한 기억을 되살아나게 함으로써 좀 더 예술의 감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고, 청중에게도 숨겨진 내면의 영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 고전을 쉽고 새로운 시선을 통해 다채롭게 소개하고자 하는 기획 취지와도 잘 맞았다.

## 여름 풍경을 담은 음악들

이날 무대는 '여름'을 주제로 선정된 피아노 작품과 각 곡에 어울리는 향에 대한 설명,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김태형과 배사라의 토크 형식으로 편안하게 들으면서 연주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태형만의 시선과 감성이 느껴지는 특별한 작품 설명이 있었고, 배사라의 각 향에 대한 해설 역시 그동안 공연장에서는 접하기 힘든 흥미로운 주제여서 청중의 몰입도가 높았다. 특히 청중은 연주를 듣기 전, 곡과 어울리는 향을 직접 시향하면서 각자의 기억 속에 숨겨져 있던 기억과 감각을 예술 속에 투영할 수 있었다. 자연 속 숲과 바다,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자유, 뜨거운 태양의 강렬함, 쓸쓸함이 공존했던 여름의 다양한 이미지들은 그렇게 선곡된 작품 속 다양한 향과 어우러져 청중을 지난여름의 기억 속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했다.

첫 곡은 슈만의 <숲의 정경> 중 4곡이 연주되었다. 1848년 작곡된 이 작품은 슈만의 피아노 소품으로 자연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곡이다. 이날은 9곡 중에서 <1. 숲으로의 입장>, <5. 친근한 풍경>, <6. 속소>, <7. 예언자 새>를 감상할 수 있었다. 마치 숲속에 들어온 듯한 투명한 피아노 음색과 이 작품과 어울리는 시원한 스파이시 향이 어우러지면서 연주 공간은 순식간에 여름 숲으로 변했다. 프로그래머에 정성스럽게 첨부된 시향지들은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궁금한 마음으로 향을 맡아볼 수 있는 설렘을 선물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6월 뱃노래>에는 차이콥스키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쓸쓸한 정서가 담겨 있어 러시아의 여름밤 강가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김태형의 자연스럽고 담백한 피아노 연주 기법이 돋보이는 가운데 향유고래의 달콤한 머스크향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음악 풍경은 청중에게도 긴 여운을 남겼다. 매혹적인 선율을 지닌 히나스테라의 <아르헨티나 춤곡> 중 <2. 아름다운 처녀의 춤>은 달콤하고 파우더리한 목련과 장미향이 어우러진 향으로 표현되었다. 거기에 아르헨티나 민속 리듬 특유의 풋풋함과 젊음, 순수함이 피아노 선율 속에 녹아나 한층 풍성한 아름다움을 전했다. 섬세한 테크닉이 빛났던 라벨의 <거울> 중 <나방>은 라벨이 속했던 예술가 모임 '무시크' 멤버들에게 헌정한 다섯 곡의 피아노 모음곡 중 첫 곡으로 어두운 밤 날아다니는 나방의 이미지가 연주에서도 긴장감 넘치게 잘 드러났고, 불빛 속에 파닥거리는 나방의 날갯짓은 제비꽃 잎사귀 향기로 표현되어 시향하는 청중에게 색다른 묘미를 선사했다.

드뷔시의 <영상> 2권 중 <2. 황폐한 사원에 걸린 달>, 그리고 이어진 <렌토보다 느리게>는 동양적인 신비한 분위기에 침취한



드뷔시의 마음이 우윳빛 향나무의 따스한 향으로 표현되어 깊은 인상을 주었다. <렌토보다 느리게>는 여름 바다의 파도를 연상시키는 드뷔시 특유의 화성과 울림으로 표현되어 여름이 주는 변화무쌍한 매력과 자연 그대로의 생동감을 피아노 선율을 통해 느끼게 했다. 드뷔시의 <전주곡> 1권 중에서 선곡된 <5. 아나카프리 언덕에서> 느껴진 이탈리아 지중해의 햇살은 차분한 음색의 따스한 서정 속에서 반짝거렸고, 반복적이고 울림이 긴 화음의 여운들은 포근한 아로마 향기와 함께 치유와 힐링의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 곡은 슈베르트의 <물레방앗간의 노래> 중 <어디로?>를 리스트가 피아노로 편곡한 작품이었다. 청중은 이날 시향지 중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을 맡으며 슈베르트의 음악을 감상했다. 잔잔히 흐르는 물결이 투명한 피아노 선율로 표현되면서 청중들은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그동안 선사한 여름날의 다채로운 풍경 속으로 스며들었다.

시냇물에 길을 묻던 순수하고 풋풋한 슈베르트 작품 속 소년의 호기심은 이 작품을 들으며 어떤 향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중의 마음과 함께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와 향기와 마음들이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서서히 가을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 국지연

월간 <피아노음악>, 월간 <스트링앤보우>, 월간 <객석> 편집장 역임, 현재 '컴퍼니 언' 대표로 <당신결의 클래식> 라디오 방송 진행, 클래식 공연 해설과 강연,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으며 음악 칼럼니스트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영화 감독 이명세, 음악감독 조성우, 소설가 김영하 작가와 함께하는 '클래식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GGI GG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2025 KOREA PIANO FESTIVAL

# 2025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KOREA PIANO FESTIVAL

KOREA PIANO FESTIVAL

라벨 150 & 쇼스타코비치 50  
RAVEL 150 & SHOSTAKOVICH 50

# 25.10.26.-11.1.

### 대극장

10.27. Mon. 19:30  
오프닝 콘서트  
10.28. Tue. 19:30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10.30. Thu. 19:30  
신박듀오 피아노 리사이틀  
11.1. Sat. 17:00  
피날레 콘서트

### 소극장

10.29. Wed. 19:30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10.30. Thu. 11:00  
브런치 콘서트

10.31. Fri. 19:30  
조용성트리오 재즈콘서트  
11.1. Sat. 11:00  
STAGE FOR YOU

### 열린무대

10.26. Sun. 17:00  
영화 <볼레로 : 불멸의 선율>



# INSIGHT

## ART AND THE CITY

살아있는 캔버스 같은 도시, 런던

## ATTRACTION

연극을 사랑하는 일본인이 바라본 대학로

## ARTIST TALK

당신의 소울에 힐링과 위안이 필요하다면  
브라질 재즈 밴드, <세룰리안 블루> 인터뷰

## ON & OFF

미술 성지순례의 시대, 전시장에서 예술 성지까지

## ESG & ART SCENE

생성형 AI시대의 위기와 예술에서 해법 찾기



# 살아있는 캔버스 같은 도시, 런던

영국 런던 하면 세 가지가 유명하다. 맛있는 음식, 꿀꿀한 날씨, 그리고 축구. 최근 몇 년간 런던은 한국 관광객으로 특수를 누렸는데, 그 이유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화창한 로스앤젤레스로 떠나면서, 한국인들에게 런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듯하다. 그러나 런던의 매력이 과연 그뿐일까? 영국인으로서 런던의 진정한 문화·예술적인 면모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글&사진. 폴 카버(방송인, 프리랜서 번역가)

## 다층적이며 영속적인 런던의 역사

“영어는 런던과 같다. 거만하리만큼 야수적이지만 심오하면서 세련됐으며, 평범하면서도 귀족적이고, 천박하면서도 격식을 갖추었으며, 세속적이고도 신성하다”

- 스티븐 프라이(영국 작가)

런던은 인구 1,500만 명이 넘는 서유럽 최대의 대도시이지만, 항상 영국의 수도였던 것은 아니다. 서기 43년 로마가 영국을 침략한 지 약 4년 후, 템스강 변에 전략적 요충지로 세워진 ‘론디니움’이 런던의 시초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후 서기 61년 부디카 여왕의 반란 실패로 론디니움은 완벽히 파괴되었지만, 서기 100년 로마인들이 이를 재건하며 런던은 가장 중요한 로마의 정착지로 탈바꿈한다.

9세기 런던은 색슨족의 통치 아래 부흥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1066년 노르만 정복과 함께 잉글랜드의 수도가 되었다.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 시대의 런던은 셰익스피어 등을 필두로 영국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1665년 대역병과



# LONDON

51° 30' 26" N, 0° 7' 39" W

동틀 무렵 런던의 스카이라인은 로마의 유적과 고층 빌딩이 어우러지며 빼어난 장관을 이룬다.



빅 벤(Big Ben).



햄프턴 코트 궁전(Hampton Court Palace).



런던 아이(London Eye), 영국 런던의 템스강 사우스뱅크에 있는 캔틸레버식 대관람차.

1666년 런던 대화재로 큰 재난을 겪는다. 반면, 이러한 재난은 세인트 폴 대성당을 설계한 크리스토퍼 렌 경과 같은 건축가들의 주도하에 런던이 대대적인 재건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8~19세기 런던은 대영제국의 심장이자 금융·정치·산업의 세계 최대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 찰스 디킨스는 부유하면서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한 당시의 사회상을 작품을 통해 생생하게 담아냈다. 20세기에 들어 런던은 또다시 제2차 세계 대전의 집중 폭격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전후 재건과 함께 다문화 도시로 변모했다. 스윙잉 60년대(Swinging Sixties)<sup>●</sup>를 거쳐 런던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금융·패션·예술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재탄생했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로마 유적, 중세 첨탑, 빅토리아 시대의 다리, 그리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런던의 스카이라인은 다층적이며 영속적인 런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sup>●</sup> 1960년대 중후반,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청년 주도의 문화 혁명

### 활기찬 예술의 중심지

“런던은 살아있는 캔버스와도 같습니다. 예술이 벽 위를 타고 흘러넘쳐, 거리와 지하철역, 심지어 이웃 간의 대화 안에도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 그레이스 페리(예술가, 터너상 수상자)

런던은 세계적 예술의 중심지로서 상징적인 갤러리들과 박물관들이 자리한 곳이자 성장하는 대안 예술의 중심지다. 그 중심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2000년 개관 이후 피카소, 로스코, 아이 웨이웨이, 쿠사마 야요이 등의 작품으로 현대 미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기념비적인 설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터빈 홀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명소다. 인근의 테이트 브리튼은 터너, 호크니, 프랜시스 베이컨의 뛰어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트라팔가 광장의 국립미술관은 고전미술의 성지로, 3~20세기 방대한 컬렉션과 반 고흐, 다빈치, 렘브란트, 보티첼리의 걸작들을 전시 중이다. 또한, 웨스트엔드의 왕립예술학교(Royal Academy of Arts, 1768년 설립)는 매년 여름 전시회로 예술적 다양성을 기념한다. 이스트 런던의 쇼디치, 해크니, 화이트채플에는 독립 갤러리와 스튜디오, 거리 예술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다. 첼시의 사치 갤러리는 현대적이고 도발적인 작품들에



프리즈 2020 작품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는 관람객들.



프리즈 2021 야외 설치 작품.



Frieze Seoul 2025, 사진 @프리즈 공식 웹사이트, Wecap Studio.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 다른 축인 바비칸 센터는 브루탈리즘 건축 속에서 시각 예술, 음악 등을 결합한 다채로운 융합 예술을 선보인다.

버킹엄 궁전의 왕립 컬렉션도 놓칠 수 없다. 여름철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스테이트 룸에서는 카날레토, 렘브란트, 루벤스, 게인즈버러의 걸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이 모여 런던을 활기 넘치는 창의적 캔버스로 만든다. 르네상스부터 급진적 예술, 기념비적인 미술관부터 숨겨진 스튜디오까지 모든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 무료입장이다.

###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문화예술축제의 도시

“런던에서 삶증이 난 것이 아니라 삶에 삶증을 느끼는 것이라. 인생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런던에 있기 때문이다”

- 새뮤얼 존슨(영국 작가)

런던은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예술과 음악 축제로 가득하다. 176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왕립 아카데미 여름 전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예술축제로, 수많은 작품을 선

보이며 여름철 최고의 볼거리를 선사한다.

매년 10월 리젠트 파크에서 열리는 프리즈 런던은 국제 예술계의 주요 행사로, 전 세계 우수 갤러리의 최첨단 현대 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더불어 프리즈 마스터즈(Frieze Masters)는 고대부터 20세기 작품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프리즈 런던과 프리즈 마스터즈의 전시 공간을 이으며 주요 야외 작품들을 무료로 전시하는 프리즈 스컬프처(Frieze Sculpture)도 큰 볼거리다.

예산이 부족한 미술품 수집 입문자들에게는 어포더블 아트 페어(Affordable Art Fair)가 좋은 선택이다. 50파운드부터 6,000파운드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신진 작가의 작품을 살 수 있다. 런던 벽화 페스티벌(London Mural Festival)은 런던 최대 규모의 거리 예술축제로, 도시 전역 100점의 벽화와 라이브 이벤트, 아티스트 토크, 투어,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BBC 프롬스(BBC Proms)는 여름 8주간 70회 이상의 콘서트로 세계 최대 규모의 클래식 음악 축제의 면모를 과시한다. 오랜 전통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과 국기를 흔들며 표출되는 영국 특유의 애국심이 유쾌하게 혼합된 프롬스의 '마지막 밤(Last Night of the Proms)'은 행사를 멋지게 마무리한다. 사우스뱅크 센터의 멜트다운 페스티벌(Meltdown Festival)에는



2025 멜트다운 페스티벌 콘서트 현장.

자비스 코커, 데이비드 보위, 리틀 심즈 같은 유명 음악 거장들이 큐레이터로 참여해 10일간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한다. 1966년부터 매년 열리는 노팅힐 카니발은 유럽에서 가장 큰 거리 축제로 매회 200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카리브 문화의 향연이다. 스틸 드럼 밴드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화려한 의상의 가면 쓴 무용수들이 차량 행렬하는 모습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이처럼 런던의 축제들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이루는 런던의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며, 기성 예술가들과 신진 예술가 모두에게 균형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 활기찬 예술의 중심지

“런던은 모두의 보금자리입니다”

- 벤자민 디즈레일리(전 영국 총리)

런던은 오랫동안 수많은 예술가를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도시였다. 윌리엄 호가스(1697~1764)는 『방탕자의 진보(A Rake's Progress)』 같은 작품으로 18세기 런던 사회를 날카롭게 비꼬는 영국 회화와 풍자의 아버지로 불린다. 코벤트 가든 출신의 J.M.W. 터너(1775~1851)는 템스강과 런던 스카이라인을 다스

비현실적으로 묘사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미술사의 흐름을 바꾸며 현재는 영국 최고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그의 이름을 딴 터너상이 영국 최고의 미술상으로 여겨지는 것만 봐도 그의 위상을 알 수 있다.

프랜시스 베이컨(1909~1992)은 사우스 켄싱턴 작업실에서 인간의 고통, 정체성, 실존적 공포를 다룬 제작된 필터링되지 않은 강렬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손자인 루시안 프로이트(1922~2011)는 생애 대부분을 런던에서 보냈는데, 이후 구상 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후반 런던의 젊은 영국 예술가들(YBA: Young British Artists)은 도발적인 작품으로 전통 미술의 개념에 도전했다. 데미안 허스트의 포름알데히드 동물 작품, 트레이시 에민의 더러운 침대, 크리스 오피리의 코끼리 똥 그림 등은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이단자(enfants terribles)'들은 현대 영국 미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오늘날에는 익명의 거리 예술가 뱅크시가 거리를 캔버스로 활용하고,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토마스 헤더웨이 신형 버스를 디자인하며, 이제 런던은 도시 곳곳에서 살아있는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한국과의 교류 확장, 그리고 변화**

**“멀리 있는 마을을 불러들이는 런던”**

- 더 클래시(The Clash, 영국 펑크 록 밴드)

최근 영국 정부는 한국과의 문화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1년 국립초상화미술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런던 국립초상화미술관의 아이콘과 정체성〉 순회 전시를 개최해, 윌리엄 셰익스피어부터 아이작 뉴턴, 비틀즈, 에드 시런까지 16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는 인물들의 초상화 78점을 선보였다. 2025년에도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어진다.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영국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총감독으로 참여 중이다. 6월 LG아트센터의 매튜 본 버전의 <백조의 호수>, 7월 로열 발레단의 <퍼스트 갈라>, 9월 말 펀치드링크 제작의 몰입형 연극 <슬립 노 모어> 등 영국 예술가들의 뛰어난 작품들이 이미 한국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시각 예술 분야에서는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 아트페어가 9월 초 서울에서 다시 한번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행사는 영국이 아시아 미술계에 기여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런던 예술계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그 깊이와 폭이 너무 광범위해서 한 편의 기사에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허용된 글자 수 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심도 있게 다룰지, 아니면 예술사, 예술인, 그리고 예술계 행사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데 초점을 맞출지 선택을 해야 했다.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갖추었길 바라며,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오래된 인용구를 마지막으로 하나 남겨드린다.

**“런던에서의 나쁜 하루가 다른 곳의 좋은 하루보다 낫다.”**

**폴 카버(Paul Carver)**

영국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한국에서 방송인, 유튜버, 프리랜서 번역가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2016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특별시청에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



영국 런던의 존슨 박물관에 보관된 윌리엄 호가스의 그림.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보관된 윌리엄 터너의 작품.



거리를 캔버스로 삼은 뱅크시 작품.



토마스 헤더윅이 디자인한 런던 버스.

# 연극을 사랑하는 일본인이 바라본 대학로

흔히 영화계는 '충무로', 연극계는 '대학로'라고들 해왔다. 한데 지금은 충무로가 영화의 중심지였던 시대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쉽게도 충무로의 상징이었던 '대한극장'까지 작년에 문을 닫았다. 반면 대학로는 현재도 극장이 많이 모여 있는 연극의 중심지다. 연극을 사랑하는 일본인 입장에서 대학로만이 가진 매력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글&사진. 나리카와 아야(작가, 전 아사히신문 기자)

내가 처음 대학로를 찾은 것은 2002년 고려대학교 어학당에 다녔을 때다. 지인이 강력히 추천해 준 극단 학전의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보러 갔다.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지하철 1호선>은 내가 가장 많이 본 뮤지컬이다.

처음 가본 대학로는 극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좋아 할 만한 카페와 식당도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왁자지껄한 분위기였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보였고, 친구들과 자주 가게 됐다. 2005년에 교환학생으로 성균관대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나에게는 서울에서 가장 익숙한 장소가 됐다.

나중에 아사히신문 문화부 기자로 연극과 뮤지컬을 담당하면서 극장이 많이 모여 있는 도쿄 시모키타자와(下北沢)에 자주 가게 됐지만, 내가 학생 시절 연극과 뮤지컬을 많이 본 곳은 단연 대학로였다.



# DAEHAKRO



대학로의 상징적인 장소가 된 서울연극센터.

<지하철 1호선>, <빨래>...

외국인도 반할 만한 대학로의 작품들

대학로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연극과 뮤지컬의 매력에 달려 있다. 나는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 싶은 작품은 자유롭게 보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볼 수 있는 작품이 한정되어 있다. 뮤지컬은 노래를 즐길 수 있어서 괜찮지만, 연극은 대사를 이해할 수 없으면 힘들다.

대학로의 극장은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실제로 공연을 올리고 있는 극장은 100개 이하라고 한다. 2010년대 이후 뮤지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역의 대형 극장을 이용하는 관객이 늘어난 것도 그 요인의 하나인 것 같다. 일본에서 한국 뮤지컬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대형 극장의 뮤지컬은 일본보다 티켓 가격이 비싸다. 이때 대학로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 가격은 큰 장점이 된다. 특히 평일은 할인 금액으로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학로에서 <지하철 1호선>이 상연됐던 당시에는 일본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에게 <지하철 1호선>을 추천하곤 했다.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와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들이 출연했던 작품이라고 소개하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김민기 극단 학전 대표가 2024년에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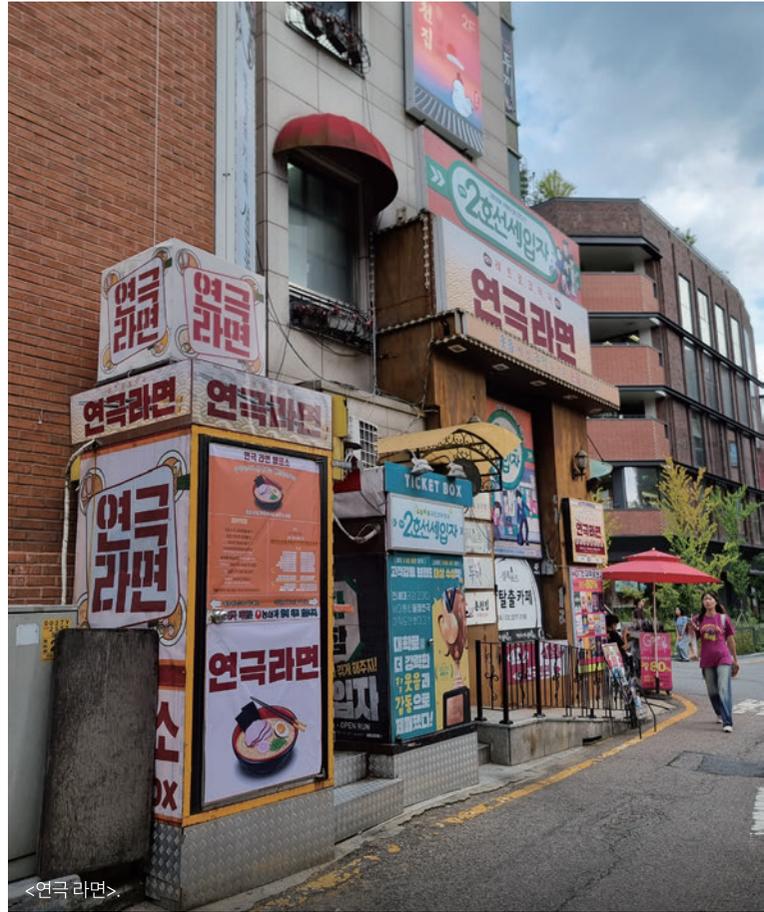
<지하철 1호선> 다음으로 권하는 뮤지컬은 <빨래>다. 두 작품 모두 서울의 서민을 그린 웃고 울게 되는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빨래>도 인기가 많아 2005년에 시작하고 올해 30차 공연을 올리고 있다. 일본에도 <빨래> 팬이 많아 일본에서 상연한 적도 있고, 대학로에서 일본 배우가 <빨래>의 주연을 맡은 적도 있다.

'빨래'라는 행동은 어느 나라 사람에게나 일상이고 공감하기 쉬운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빨래를 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나도 타지인 서울 하숙집에서 빨래를 하며 엄마를 생각했던 때가 떠올랐다. 누구나 빨래에 대한 추억은 있을 것이다.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점도 흥미로웠다. 불법체류로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병원에도 못 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노래가 좋고 웃음이 터지는 장면도 많아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편, 연극은 어떤 작품을 추천해야 할지 고민된다. 작년에 일본에서 예술대학 학생들이 연수 여행을 왔을 때 인솔 교수가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싶는데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답할 수 없었다. 찾아보고 제안한 작품은 <연극 라면>이다. 한국의 라면은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와서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 학생들의 취향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2015년부터 상연하



뮤지컬 <빨래>



<연극 라면>



연극 <불편한 편의점>



고수희 극단58번국도 대표. 사진: @김하람

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믿고 추천할 근거가 됐다. 무엇보다 일본어 자막이 있다는 점이 컸다.

추천만 하고 나는 시간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봤는데, 궁금해서 나중에 혼자 보러 갔다. 자막은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까지 3개 국어를 동시에 제공했다. 연애와 결혼이 주제였던 것도, 마지막에 무대에 진짜 라면이 등장해서 배우가 실제로 먹는 것도 예상대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자막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연기와 자막이 엇갈리는 장면이 많았다. 자막이 있는 연극은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많이 엇갈리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웠다. 자막의 타이밍만 좀 더 개선하면 외국인들이 즐길 만한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원작을 알고 있으면 한국어를 몰라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작품들도 있어 반갑다.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일본에서도 2024년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3위에 올라 읽은 사람이 많다. 대학로에서 상연하고 있는 뮤지컬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은 원작을 읽은 사람에게는 한국인, 외국인을 떠나 추천하기 쉽다. 요즘은 인기 소설이 연극이나 뮤지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늘어나서 나도 적극적으로 보고, 라디오나 기사를 통해 일본에 알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극단은 '극단58번국도'다. 고수희 배우가 대표와 연출을 맡는 극단으로, 일본 희곡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상연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올해 6~7월에 대학로에서 상연한 연극 <타인>은 연습 현장도 취재하고 고수희 대표를 인터뷰해서 일본 매체에 기사를 올린 바 있다. 고수희 배우는 제일교포 가족을 그린 연극 <야끼니꾸 드래곤> 초연(2008년)에 출연해 외국인 최초로 요미우리 연극대상 여자 우수 연기상을 받아서 일본에서도 알려져 있다. 올해도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야끼니꾸 드래곤>을 상연하고 고수희 배우가 출연한다.



극단58번국도는 2023년에 창단되어 현재까지 일본 희곡 6개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상연해 왔다. 극단의 이름으로 쓰인 58번 국도는 가고시마(鹿児島)에서 오키나와(沖縄)로 이어지는 국도다. 해상을 잇는 특이한 국도에 영감을 얻어 한국과 일본을 연극으로 연결하는 이미지로 극단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극단58번국도가 상연한 <타인>은 다케다 모모코(竹田モモコ)의 희곡으로 여성 3명의 '타인'이 동거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동성애나 결혼관 등 한일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한다.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직설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일본식 표현법이 한국 배우들에게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한다. 배우들은 일본 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보며 일본식 표현법을 연구하면서 연기했다. 일본 희곡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므로 되도록 원작 그대로 상연한다. 등장인물의 이름도 일본 이름 그대로이고, 무대 위에 다다미가 깔려 있어 일본 연극을 보는 것 같지만 대사는 한국어다.

흥미로운 시도라는 내 기사를 보고 지난 8월 극단58번국도의 <상대적 속세>를 보러 일부러 일본에서 온 친구도 있었다. 츠치다 히데오(土田英生)의 희곡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상연했는데, 일본의 사생관(死生觀,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견해)을 엿볼 수 있었다. 무대 위에 일본 묘지가 펼쳐져 있는 것도 신기했고,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인생을 생각하게 만든 작품으로 올해 본 연극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다.

### 대학로라는 공간의 매력

혜화역 4번 출구를 나오면 바로 '서울연극센터'가 있어 공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에서 상연하는 연극과 뮤지컬의 전단이 많이 있어서 대학로에 가면 들리는 곳이다. 라운지에서 천천히 연극 잡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좋다.

일본에서는 공연을 보면 다른 공연의 전단을 많이 받게 된다. 가기 전에 좌석에 여러 전단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져가게 된다. 집에 가서 다음에 어떤 작품을 볼지 고르게 되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대부분은 버리게 돼서 종이가 아깝다. 서울연극센터에 가면 관심이 있는 작품만 골라서 전단을 가져갈 수 있어서 합리적이다. 그런데 좀 더 존재감이 있어도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은 든다. 서울연극센터를 찾는 사람은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에 비해 많지 않은 것 같다. 대학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전 등 대학로에 대한 관심을 높일 만한 기획을 하면 어떨까 싶다. 대학로와 한국 연극에 대한 글을 일본어로 쓴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대학로에 대해 알기가 쉽지 않았다.

대학로와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연극의 중심지 '시모키타자와'도



연극 <상대적 속세>.



서울연극센터.



학림다방.



시모키타자와(下北沢) 거리 풍경.

재미있는 곳이다. 소극장이 많이 있는 것은 대학로와 마찬가지로 인데, 연극뿐만 아니라 인디밴드 공연도 많아 대학로와 흥대를 합친 느낌이다. 시모키타자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카레집이 많다는 것이다. 카레 페스티벌도 시모키타자와에서 열린다. 일본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카레라고 해도 될 정도 일본인은 카레를 좋아하는데, 나도 시모키타자와에서 공연을 취재하면서 카레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대학로는 맛집이 많음에도 대표 음식은 특별히 없는 것 같다. 공연을 보면 극장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로의 특징적인 음식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주는 것은 카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가게들이 빨리 바뀌지만, 내가 대학생이었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카페가 있다. 1956년에 오픈한 노포 '학림다방'이다. 레트로한 분위기가 좋다. 내가 다니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이미 서울대학교는 관악산으로 이전한 후였지만, 대학로가 왜 대학로라고 불리게 됐는지에 대해 학림다방에서 들었다. 학림다방은 서울대생이 모이는 장소였고, 시인 김지하나 소설가 이청준도 다녔다고 한다. 상상만 해도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대학로에서 공연만 보고 가는 일은 거의 없고, 공연 전후에 친구와 차를 마시며 공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대학로를 느낄 수 있는 카페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다.

최근 또 하나 대학로다운 카페가 생긴 것도 반갑다. 북카페 '인스크립트'다. 한 영화감독이 연극과 영화, 드라마에 관한 책들이 많다고 알려줘서 배우인 친구와 함께 찾아갔다. 책에 둘러싸인 빨간 원탁이 인상적인 공간이다. 사고 싶은 책은 많았지만, 드라마 각본에 관한 책을 한 권 샀다. 드라마 각본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책을 찾던 참이었다. '인스크립트'는 연극배우 부부가 운영한다. 올해 5월에 연희동에서 대학로로 이전했다고 한다. 희곡 읽기 모임도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한번 참가해 볼 생각이다. 이러한 연극과 뮤지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공간이 늘어나면, 내가 사랑하는 대학로가 앞으로도 더욱더 매력적인 곳이 되지 않을까 싶다.

#### 나리카와 아야(成川彩)

일본 고베대학교 법학부에서 공부했고, 오사카대학교 대학원에서 통번역을 배워 한국어 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했다. 아사히신문에서 문화 담당으로 연극과 뮤지컬 등을 취재했고, 퇴사 후 한국으로 건너와 다양한 매체에 기사와 칼럼을 집필 중이다. 지은 책으로 『어디에 있든 나는 나답게』, 『지극히 사적인 일본』 등이 있다.

# 당신의 소울에 힐링과 위안이 필요하다면

브라질 재즈 밴드, <세룰리안 블루> 인터뷰

세룰리안 블루 인스타그램  
@cerulean\_blue\_jazz



CERULEAN BLUE  
BRAZIL JAZZ BAND



2025 경기도 기희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출연단체, 세룰리안 블루.

달빛을 따라 살랑살랑 춤을 추며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처럼, 세룰리안 블루의 음악은 경쾌하면서도 로맨틱하다. 세룰리안 블루는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및 페스티벌'에 참여 중인 브라질 재즈 밴드다.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은 경기도가 지역 예술인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세룰리안 블루를 통해 이제껏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브라질 음악 특유의 리듬과 매력에 빠져 볼 시간이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Guitar 김필립



Bass 김영근



Drum 이준호



Vocal 정미진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필립** 안녕하세요. 브라질리언 재즈팀 세룰리안 블루의 대표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필립입니다. 세룰리안 블루는 기타 트리오에 보컬이 추가된 형태의 팀이라, 사실상 화성악기는 기타가 유일하죠. 그래서 멜로디와 화성을 동시에 연주해야 하는 일이 많아요. 특히 즉흥연주(Improvisation)의 비중도 커서 곡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팀 대표로서 연주 레퍼토리를 만들고 브라질리언 재즈의 고전 스탠다드 곡들을 찾는 일을 하며, 연주 외에 연주 일정을 잡거나 공연 의뢰에 대한 조율 등의 업무도 책임지고 있지요.

**김영근** 저는 베이스를 맡은 김영근입니다. 브라질리언 재즈는 전통 리듬에서 쓰이는 악기를 현대 악기로 대체하곤 하지요. 술두(Surdo, 타악기 드럼) 등 서양의 베이스드럼과 같은 역할을 하는 퍼커션을 기반으로 아고고(Agogo, 금속 타악기)나 판데이루(브라질에서 연주하는 한쪽 면만 있는 탬버린)의 패턴 일부를 베이스라인에 접목하여 리듬 역할을 확장하는 등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안녕하세요. 2016년 우연히 세룰리안 블루와 함께 하며 브라질 재즈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이준호라고 합니다. 밴드에서 드럼과 퍼커션을 맡고 있어요. 단순히 드럼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음악에 쓰이는 다양한 리듬 패턴을 드럼 사운드로 오케스트레이션해서 표현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드럼이라는 악기로도 브라질 음악의 흥겨움과 클래식한 색깔을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있지요.

**정미진** 보컬 정미진입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에요. 고등학교 동기의 제안으로 세룰리안 블루의 객원보컬로 참여한 것이 첫 만남이자 정식 보컬로 활동하게 된 계기였어요. 팀 활동으로 언어나 브라질 리듬에 관해 연구하고 배우며 함께하고 있죠.

브라질 재즈 밴드 중에서 합이 제일 잘 맞는 팀이라고 자부해요. 와! 함께한 지 벌써 4년이 넘어가네요.

## Q. 세룰리안 블루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김영근** 처음에는 브라질의 기타리스트인 넬슨 파리아(Nelson Faria)의 교재 수록곡을 연습하는 스터디밴드로 시작했어요. 오랜 기간 합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원들이 브라질리언 레퍼토리를 본격적으로 연주하는 팀을 결성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2018년쯤 현 멤버인 기타리스트 김필립, 베이스리스트 김영근, 드러머 이준호를 중심으로 팀이 결성되었죠.

## Q. 밴드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김필립** 브라질 음악에는 특히 자연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노래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과 연관된 이름을 찾던 중 유화 물감 튜브 한 모퉁이에 적힌 세룰리안 블루(Cerulean Blue)를 보고 착안하게 되었죠. 세룰리안 블루는 바다, 하늘, 강, 더불어 진한 녹색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김영근** 흔히 알려진 카니발 음악, 축제 음악으로서의 브라질 음악과 서정적이고 클래식컬한 쇼루(Choro), 현대적인 보사노바가 합쳐진 우리 팀의 색채와 잘 어울리는 이름인 셈이죠.

## Q. 밴드의 주요 음악 장르인 브라질 재즈 음악이란 무엇인가요?

**김영근** 브라질의 각 지방의 전통적 리듬위에 유럽의 클래식의 영향받아 발전해온 쇼루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리듬과 결합한 삼바, 그리고 미국 재즈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한 보사노바



등 다양한 브라질 음악들을 뜻합니다. 미국의 재즈가 아프리카 메리칸의 블루스나 가스펠 유럽의 클래식등 다양한 문화가 결합된 형태인 것 처럼 브라질리언 재즈 역시 유럽의 클래식과 브라질 토착 원주민 또는 아프리카 리듬등이 결합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필립** 브라질리언 재즈 이전에는 우리 멤버들 각자 전통적 형태의 재즈를 연주하던 연주자이기도 했지요. 다만 저의 경우 브라질리언 재즈 기타의 연주 기법이나 나일론 기타를 쓰는 부분들이 있어 따로 클래식 기타 공부를 병행해야 했어요.

**이준호** 브라질 음악 안에는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있어요. 삼바(Samba), 보사노바(Bossa nova), 바이아웅(Baião), 프레보(Frevo) 같은. 우리 팀은 특정 장르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브라질 음악을 대중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브라질 음악의 전반적인 장르들을 연주하고 있어요.

#### Q. 2023~2025년 연속으로 경기아트센터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및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계시네요.

**김필립** 제가 어린 시절부터 쪽 경기도 안양에 살아오던 경기도민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특히 전문 공연장이나 재즈클럽이 아닌 거리에서 일반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야외무대 공연을 할 때면 주민들이 모여 앉아 박수를 치고, 아이들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등 모든 것이 자유롭고 흥겨웠어요.

**정미진** 너무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멋진 자연과 그와 어우러지는 무대도 좋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산책하다가도 멈춰 듣는 자유롭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

죠. 경기도민분들의 일상에 함께하며 자연과 잘 어울리는 브라질리언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계속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김필립** 올해 경기아트센터 무대였죠. 급하게 무대 세팅을 한 탓에 제 위치가 모니터 스피커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어요. 첫 곡이 끝나고 의자를 들어 자리를 좀 옮기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제 Di Box의 전원 케이블이 빠지면서 두 번째 곡이 시작할 때 기타 소리가 완전히 안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재빨리 다시 전원을 연결해서 연주를 마무리했는데, 지금 떠올려도 정말 진땀 나는 상황이었네요. 그래도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다음 연주자분들이 잘 들었다고 호평해 주셔서 참 다행이었던 기억이기도 해요.

#### Q. 이준호 님, 2022년 'Sunset and Rain' 앨범 발매 등 작곡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준호** 사실 세룰리안 블루 팀원들은 팀 활동뿐 아니라 개인 활동도 활발히 하며 음악적 깊이를 넓히고 있어요. 수상 경력도 다수 가지고 있고요. 당시 전 20대 초중반으로 다양한 음악을 공부하며 제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Sunset and Rain'은 제 이름으로 처음 발매한 앨범이라 가장 좋아하는 작곡 작업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세룰리안 블루 팀 활동에 좀 더 집중하며 연구하면서 밴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Q. 정미진 님, 보컬로서 생각하는 브라질 재즈 음악만의 매력을 소개해 주세요.**

**정미진** 브라질 언어만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뉘앙스라든지, 리듬과 코드 진행이 어려운 만큼 아름다워요. 사랑 노래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풍자하는 곡이나 재치 있고 일상적인 주제를 담은 곡들이 많다는 게 또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남편들을 다 흘리는 옆집 여자에 대한 노래 같은 거요.

**Q. '메리 크리스마스! 브라질' 등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비대면 프로젝트를 꾸준히 펼쳐오셨습니다. 그 시기의 경험과 교훈은?**

**김영근** 준비는 철저할수록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경험이었어요. 장소 섭외, 악기 대여, 인터넷 스트리밍과 공연 실연까지 전부 저희가 준비하면서 비대면 프로젝트일수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문제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김필립** 서류 심사부터 프레젠테이션, 면접 심사까지 거쳐 준비한 연주가 코로나 경보 격상으로 모두 엿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가까스로 비대면 실시간 연주로 전환하면서 이어 나가게 되었어요. 비대면 연주는 몰입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동시간 접속자 평균 50~60명의 관객과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어요. 어디든 어떤 형식이든 관객이 있다면 그곳이 무대라는 걸 깨달은 귀한 경험이지요.

**Q. 이번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면.**

**정미진** 이번에는 좀 더 행사 같은 분위기의 멘트로 관객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데 집중해 보았어요.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



ㄷ

브라질 문화예술 전반에는 한국의 한(恨)의 정서와도 유사한 사우다지(Saudade)의 정서가 있어요.

음악이나 춤을 통해 슬픔이나 그리움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따라서 저희도 듣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음악, 그리고 살아있는 리듬감을 가진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ㄹ

고 어르신분들도 많으셔서 모두가 쉽고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했지요. 물론 좋은 연주도 들려드리고요!

**김필립** 야외무대와 열린 공연장이란 것을 염두하고 흥겹고 신나는 곡 위주로 선곡했어요. 또한, 땀보림이나 웨이커, 아고벨 같은 브라질 전통 악기들도 최대한 많이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소리를 선보이려 노력했지요.

**Q. 앞으로의 계획, 목표도 궁금합니다.**

**김필립** 브라질 문화예술 전반에는 한국의 한(恨)의 정서와도 유사한 사우다지(Saudade)의 정서가 있어요. 음악이나 춤을 통해 슬픔이나 그리움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따라서 저희도 듣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음악, 그리고 살아있는 리듬감을 가진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는 앨범 제작 중이며, 2곡은 녹음을 끝낸 상태이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세룰리안 블루를 응원하는 관객에게.**

**김필립** 저희 음악과 연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리를 향한 긴 여정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양한 무대에서 음악으로 직접 찾아뵙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술가가 되고 싶네요. 언제나 저희 음악을 듣고 따뜻한 힐링과 일상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근** 세룰리안 블루가 현재는 소규모 사운드의 완성도를 추구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좀 더 많은 악기를 동원한 대규모 사운드로 확장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미진** 편법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정진하고 더 갈고 닦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멋진 연주 들려드릴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 미술 성지순례의 시대, 전시장에서 예술 성지까지

전시를 일방으로 '관람'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SNS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주목받은 전시·작가·작품을 '직접 경험하고 기록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 '성지순례' 개념이 종교의 영역을 넘어 스타,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을 거쳐 이제 '예술'에 스며든 것이다. 그렇다면, '성지순례'는 정적이었던 예술계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일본 나오시마부터 부산 감천문화마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미술 감상의 새로운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자.

정리. 편집실

## THE AGE OF PILGRIMAGES TO ART SANCTUARIES



### 쓰레기 섬에서 미술관 섬이 된 일본 나오시마

판세를 뒤집은 건 노란 호박 조각상 한 장의 사진이었다! 일본 세토 내해에 떠 있는 작은 섬 나오시마는 제련소가 문을 닫으며 그대로 쇠퇴해 버렸다. 그런데 1980년대 베네세 그룹이 시작한 아트 프로젝트로 재탄생했고,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 조각상 사진이 SNS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며 전 세계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랐다. 한국에서만 연간 수만 명이 나오시마를 찾는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지중미술관,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다양한 조각 작품들, 그리고 폐가를 개조한 이에(家) 프로젝트까지. 단순한 인증샷 목적으로 온 관광객들은 섬 전체의 진짜 예술 체험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www.japan.travel/en/spot/220/](http://www.japan.travel/en/spot/220/)

(이미지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홈페이지)



### 영화 앞 셀카 성지가 된 뉴욕 현대미술관 MoMA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앞에서 셀카를 찍는 긴 줄이 생겨난 건 언제부터였을까? 1929년 개관한 뉴욕 현대미술관 MoMA는 수십 년간 그저 조용한 감상이 주를 이룬 클래식 미술관이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과 틱톡이 등장하며 피카소, 워홀, 모네의 작품들이 갑자기 MZ세대라면 꼭 챙겨야 할 '핫한 배경'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뉴욕 현대미술관 MoMA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늘의 인증샷 포인트'를 소개하고, 작품 앞 촬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덕분에 주 관람객층이 아니었던 MZ세대를 고전 명화들 앞으로 끌어당겼다. 클래식 미술관이 SNS를 만나 새롭게 거듭난 셈이다.

[www.instagram.com/themuseumofmodernart](http://www.instagram.com/themuseumofmodernart)

(이미지 출처: 뉴욕 현대미술관 MoMA 인스타그램)





**달동네가 아트 빌리지 성지가 된  
부산 감천문화마을**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감천문화마을은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다채로운 벽화와 조형물들이 들어서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어린이왕자> 조형물과 형형색색 지붕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는 SNS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부산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좁은 골목길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을 따라가며 인증샷을 찍으려는 국내외 관광객들로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다. 달동네에서 아트 빌리지로, 그리고 부산 필수 성지순례 코스로 놀라운 변신이다.

[www.gamcheon.or.kr](http://www.gamcheon.or.kr)

(이미지 출처: 부산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발전소 굴뚝을 도시 아이콘으로 만든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2000년 개관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원래 뱅크사이드 발전소였다. 석탄을 때우던 터빈홀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고, 그 압도적인 스케일 때문에 방문객들은 입구부터 탄성을 쏟아낸다. 터빈홀에 설치되는 대형 작품들은 SNS에서 화제가 되는 단골 소재다. 거대한 금속 조각상 앞에서 한 컷, 형형색색 네온 설치 작품과 함께 한 컷. 밀레니엄 브리지를 건너 세인트폴 대성당까지 이어지는 '런던 아트 워크' 성지순례 코스는 이제 런던의 필수 관광코스가 되었다. 산업 유산이 예술 성지로 완벽하게 변신한 케이스다.

[www.tate.org.uk](http://www.tate.org.uk)

(이미지 출처: 테이트 모던 미술관 홈페이지)



**수원의 예술 놀이 코스가 된  
경기아트센터 &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 문화공간 경기상상캠퍼스는 수원에서 빼놓기 어려운 '예술 놀이 코스'다. 경기아트센터는 다양한 공연, 전시 행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넓은 앞마당과 세련된 현대 건축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수원 루브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앞마당의 유리 조형물은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피라미드 구조물을 닮아 이색 촬영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인근의 경기상상캠퍼스는 옛 서울대 농대 캠퍼스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이색 공간으로 '공중만화탕' 같은 독특한 체험형 전시를 제공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인기를 더하고 있다.

[www.ggac.or.kr](http://www.ggac.or.kr)

(이미지 출처: 경기아트센터)



# 생성형 AI시대의 위기와 예술에서 해법 찾기

창의적 작업까지 자동화하는 AGI(범용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지금, 동시대 예술가들은 탈-인간 중심적 삶의 모색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문어의 분산된 지능을 상상하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청'의 힘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는 예술적 시도들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본다.

글. 김주원(큐레이터, 한빛교육문화재단 이사)

## 인간과 AI의 경쟁 시대

동시대를 규정하는 용어들 가운데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은 것을 꼽으라면, '기후 위기', '인류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ESG', '공생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기술 발달에 따라 인류가 직면한 위험 요소의 증가나 그 대응과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자신의 저서 『위험사회(Risk Society)』(1986)에서 자연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danger)과 사람에 의해 초래되는 인위적 위험(risk)을 구분했지만,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모든 위험(danger/risk)은 코기토(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데카르트의 명제)로서의 '인간중심'의 근대적 기획과 성공인 듯 보였던 그 기획이 자초한 딜레마적 상황임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간 이성에 기댄 근대적 기획의 동시대적 성공과 딜레마적 상황은 위 용어들이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즉 AI 다음 단계인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의 상용화는 다음과 같은 아이러니를 안고 있다. 우선,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과거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큼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쟁 시대라는 위험하고 불순한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시그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쟁이라니! 이 얼마나 불순하고 무서운 서사인가!

그 예증은 다름 아닌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 믿어왔던 '감수성', '상상력', '창조성', '천재성' 등에 기초한 '예술(작품)'조차 인간과 인공지능 간 경쟁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예술계 내부의 잇따른 인공지능과의 저작권 이슈 관련 뉴스들은 AGI가 예술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기대와 디스토피아적 우려가 팽



염지혜, <에이아이 옥토퍼스>, 2020, 단채널 영상, 16분 35초.  
피노파운데이션 미술관 컬렉션, 사진: 염지혜.

팽히 대립하며 경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잘 알다시피 AGI는 대화형 AI인 챗GPT와는 달리 창의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AI이다. 이른바 마치 인간처럼 사고하고 감응하며 창작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AGI는 이미지, 텍스트, 음악, 코드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고 아트마켓에서 거래되는가 하면 각종 공모대회에서 수상도 한다. 예컨대, 2022년 9월 CNN 등 외신은 게임 기획자 제이슨 앨런이 미드저니 AI로 제작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보도했다. 제이슨 앨런의 미드저니AI 제작 작품과 미술대회 수상은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관한 정체성 논쟁을 촉발하면서, 과학기술은 도구인가? 인간 상상력의 확장인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AG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실제 예술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 속 인간처럼 기계/복제-인간과의 차이를 증명해야 하는 슬픈 세계를 마주할지도 모른다.

## 시대적 해법1: '그것이 되어봄'을 상상하기

작가 염지혜의 <에이아이 문어(AI Octopus)>(2020)는 동시대가 직면한 위험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사유체계로서 '그것이 되어봄'을 상상하길 제안하고 있다.

16분 35초 분량의 싱글채널 영상인 이 작품은, 지능이 매우 높아 한 발짝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고 알려진 문어(Octopus)가 모티프이다. 바다의 현자라 불릴 만큼 영리하다고 알려진 문어는 총 8개의 촉수와 큰 뇌를 가지고 있다. 뇌는 그 절대적인 크기만 보면 인간의 1/600 사이즈지만, 애초에 신체 크기도 다르고 인간과 달리 온몸에 뉴런이 분포해 있어 탐색이나 물체를 움켜잡 등은 굳이 머리에서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다. 무척추동물을 통틀어 크기 대비 뇌 용량도 가장 크다. 그에 걸맞게 문어는 주변 움직임을 흉내, 모방을 할 수 있으며, 높은 사고능력,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장난도 친다는 학계 보고도 있다.

염지혜의 <에이아이 문어>는 위와 같은 문어의 생물학적 특성을 주목하고, 인간 중심의 무분별한 과학기술의 발달 등이 초래

한 폭력과 위기의 원인을 질문하고 있다. 작가는, 보통 인공지능으로 여겨지는 '에이아이(AI)'에 '문어'를 붙임으로써 <에이아이(AI) 문어>를 상상하였다. 그리고 꽤나 낯설지만, '문어 되어봄'을 상상하자고 제안한다. 염지혜의 <에이아이 문어>는 촉수 전체에 뉴런이 분포되어 있는 문어 되어봄을 통해 인간/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중심'의 근대적 기획, 그 이분법적 구조가 경직되어 풀어안지 못한 수많은 것들의 생명과 현존을 노래하며 상호 공존, 상호 연결된 현실의 직시를 외치고 있다. "... 나는 문어지능(Octopical 피). 지능의 유연한 형태 / 인지, 지능, 지식, 감각. 연결! / 감정, 느낌, 마음, 의식. 연결! / 신경, 진화, 경험, 존재. 연결! / 현재, 미래, 정신, 기억. 연결! /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

## 시대적 해법2: '찬미'와 '애도'하기

얼마 전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드리프팅 스테이션-찬미와 애도에 관한 행성간 다중 오페라》(2025.6.27-8.3)는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태도로서의 '찬미'와 사라진 존



천경우, <나무들을 위한 노래 #1, #2>, 2채널 영상, 사운드, 2023, 사진: 아르코미술관.

재를 감각하고 기억하려는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애도'를 지구적 위기 속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대안적 감정/태도로 제시하였다. 타자를 향한 '찬미'와 '애도'는 코기토 이래 가속화되었던 인간 중심적 근대기획이 외면한 감정/태도이었던 것 같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 8명/팀 가운데 비인간 존재와의 소통과 생태적 감각을 탐색하는 천경우 작가의 두 작업은 눈길을 끈다. 2채널 영상 작품인 <나무들을 위한 노래>(2023)는 두 명의 어린이가 인도 소수 언어로 구전되는 노래를 식물에 불러주는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작품은 인간이 아닌 자연/나무에게 익숙한 옛노래, 옛말을 들려줌으로써 오랜 세월 고향 땅을 지키며 살아온 자연/나무의 삶/생명을 찬미하고 어린이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등과 나누며 이어온 소통과 생태 감각을 애도하여 감각의 기억을 되살리려 하였다. 또한 '헬싱키비엔날레2021' 커미션으로 제작된 작업 <버드 리스너(Bird Listener)>(2021, 2025)는 자연 정복으로 표상되는 근대성의 기획적 범주와 다소 무관할 수 있는 '새'와 '새소리'를 주목하면서 인간과 자연, 즉 단절된 관계와 그 경계 넘기의 가능성을 모색한 참여형 설치 작업이다. 작가에게 새는, 인간은 물론 특정한 자연환경과 대지에 서식하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국경/경계 없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초경계적 존재로 여겨진 듯하다. 작가는 헬싱키 앞바다의 섬 주변을 날아다니는 가장 전형적인 새들의 소리 6종류를 조류학자와 같이 수집하여 전시장에 설치하였다. 관람객은 각각의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헤드폰 중 하나를 들으며 그 새의 형상을 집중하여 상상해 보고 주어진 종이에 준비된 펜으로 새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리고 '버드 리스너'로서 새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평소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잘 경청해 주는 실재인물(Best Listener) 한 명의 이름을 떠올리며 본인이 그린 새 그림에 그의 이름을 적는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 말하는 자와 경청하는 자의 관계는 서로를 듣는 행위에서 시작됨을 말하고 있다. 무심코 지나치며 귀 기울이지 않



천경우, <버드 리스너>, 참여 퍼포먼스와 설치, 2021/2025,  
사진: 아르코미술관.



천경우, <버드 리스너>, 참여 퍼포먼스와 설치, 2021,  
사진: 헬싱키비엔날레 홈페이지.

았던 새소리를 경청한다는 '찬미'의 행위는 나를 가장 잘 경청해주는 타자의 존재를 감각하고 기억하는 '애도'의 극진한 태도와 공명한다.

### 우리의 지속가능한 공생가능성

앞서, 열거한 동시대 용어들 가운데, '기후위기', '인류세', '인공지능'은 위험사회의 징후로 거론할 수 있다면,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공생세' 등은 인류가 직면한 위험 요소에의 대응이나 해법과 관련 있다. 두 용어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핵심 아젠다로 삼고 인간중심의 인류세에서 모든 생명의 상호의존성을 지향하는 공생세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아닌 '타자 되어봄', 인간이 아닌 '문어 되어봄', 무심히 지나쳤던 '그것이 되어봄'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보다 타자를 '경청'하고 그에 집중함으로써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술 작품을 둘러싼 AGI와의 저작권 논쟁으로 표면화된 인류의 실존적 위험은 유행이나 힙한 용어로서의 'ESG'와 '공생세'의 공허한 사용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 지구, 생명, 공동체 속에서 나/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성찰하고 타자/자연/비인간을 찬미하고 애도하는 윤리적 실천에 진심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공생가능성은 실현되지 않을까.

### 김주원

대구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에서 학예연구실장을 지냈다. 홍익대학교 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 CCA 기타큐슈 초청 펠로우로 활동했다. 2002년부터 현대미술 분야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전시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 GGAC

# STORY

## ZOOM IN

담을 넘는 예술, 거리로 나선 감동

<거리로 나온 예술> 조일현·정의연·지수원 PD

## GGAC NEWS

## CALENDAR

## EPILOGUE



# 담을 넘는 예술, 거리로 나선 감동

<거리로 나온 예술> 조일현·정의연·지수원 PD



왼쪽부터 조일현·지수원·정의연 PD.

예술 무대가 담을 넘는다.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 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춤, 노래, 마술, 인형극, 전시에 이르기까지 각종 예술 무대가 공연장이라는 틀을 벗어나 펼쳐진다. 그리고 여기에 완벽하지 않아도 흥겹고, 세련되지 않아도 감동적인 예술인들의 무대를 관객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 거리 곳곳을 종횡무진하며 예술인들과 함께 빛나는 순간을 만들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편집실 |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Q. 이번 <거리로 나온 예술>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나요?**

조일현 안녕하세요. 저희 세 명은 모두 2025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본부 문화나눔팀 소속 PD들이에요. 저는 생활예술단체 계약과 지출, 거리 공연 및 방문 공연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조일현 PD라고 합니다.

정의연 반갑습니다. 정의연 PD입니다. 전문예술단체 계약과 지출, 사업실적 관리, 공연 및 전시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지수원 저는 지수원 PD입니다. 현재 <거리로 나온 예술>과 관련한 예술단체 관리, 사업예산 관리, 홍보 등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거리로 나온 예술>이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정의연 예술인들을 공모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공연과 전시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버스킹처럼 야외에서 진행하는 거리 공연, 예술단체가 요양원, 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등 문화 소외 시설에 찾아가는 방문 공연, 그리고 여러 작가가 합동으로 선보이는 전시 등이 진행되고 있죠. 문화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예술을 만들고 즐기는 세상'을 만드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수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아트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이죠.

조일현 올해는 우나보체, 락드림, 비엔풍물연구소 등 400여 예술팀이 경기도 곳곳에서 750여 회의 거리 공연 및 방문 공연을 펼치고 있어요.

**Q. 본 행사 직무에 지원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조일현 타 기관에서 이미 찾아가는 공연장 지원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하하.)

지수원 저는 <거리로 나온 예술>이 궁금했어요.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는 어떤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할까?', 또 '거리 공연이 어떤 감정 혹은 감각을 관람객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기대에, 직접 참여해 보고자 지원하게 되었네요.

정의연 어릴 적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공연을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막연히 '문화예술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연장이 아닌 학교에서 공연한 경험이 있었죠. 공연장이 아니어도 훌륭한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 직무 공고를 보고 함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Q. 이번 행사에서 가장 세밀히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정의연 개인적으로 전시 분야를 손꼽고 싶어요. 작년에는 전시를 거리나 시설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문 전시장을 대관해서 북부, 남동부, 남서부 세 권역에서 수일에 걸쳐 합동으로 전시를 열 계획이에요. 전시 분야 예술인들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지수원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 매 회차 신경을 쓰게 되죠. 특히, 거리 공연의 경우에는 변수가 많거든요. 관람객들의 연령대는 다양하고, 요즘 객석에서는 반려견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음향 장비를 비롯해 공연에 필요한 수많은 장비도 때로 위험 요소가 되곤 합니다.

**Q.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조일현 열정적인 무대를 볼 때마다, 새삼 이 일의 보람을 느껴요. 공연에 신이 나서 춤을 추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미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어요.

지수원 저도 역시나 공연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관객분들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행복한 관객들의 표정을 볼 때의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의연 전 며칠 전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고 비가 온 날을 잊을 수 없어요. 거리 공연 날이었는데, 무대 루프에 물이 고여 리허설이 중단될 정도였어요. 부랴부랴 스태프들과 현장을 정리하고 무대 구조를 보강해서 감사하게도 별 탈 없이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야외 공연이지만, 예술인들이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무대를 무사히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에 벅찼어요.

**Q. <거리로 나온 예술>이 지역 예술가와 관객에게 미치는 의미와 영향은 무엇일까요?**

지수원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다양함'이 아닐까요. 예술인에게는 다양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관객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만나는 경험이니깐요.

정의연 다양한 배경,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만큼 경기도민이 다채로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터전을 넓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해요.

**Q.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궁금해요.**

조일현 우선 많은 사람이 '경기아트센터'하면 <거리로 나온 예술>을 바로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더 많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술인이었던 경험과 문화예술 기관 직원으로서의 경력을 녹여서 두 집단 간



조일현 PD



왼쪽부터 정의연 지수원 PD.

의 든든한 소통 창구가 되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품어 보아요.

**정의연** 앞으로도 저는 계속 문화예술 분야에 몸담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분명 힘든 순간들이 있을 테지만, 공연은 저에게 그 걸 극복할 힘을 주거든요. 여러 사람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관객들의 행복한 반응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Q. <거리로 나온 예술>을 진행하며 함께 한 분들이나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정의연**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거리로 나온 예술>은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사업을 계획하고, 행정 처리를 하고, 현장을 운영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에 함께 하는 분들이 정말 많지요.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만큼 많은 분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 드리고 싶어요.

**조일현** <거리로 나온 예술>은 일반 공연장이 아닌 기관을 찾아가거나 거리에 무대를 세우고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참여 예술인, 직원과 관계자들의 고생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더불어, 이렇게 인터뷰로 <거리로 나온 예술>을 한 번 더 소개할 기회를 주신 경기아트센터에도 감사 인사드려요.

**지수원** 무더운 여름날에도 같이 즐겨주시고, 응원해 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려요. <거리로 나온 예술>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11월까지 공연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안정하게, 즐겁게 공연 이어갈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남은 공연들 흥겹게 즐겨주시고, 함께해주신다면 더욱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세요!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경기도무용단  
GYEONGGIDO DANCE COMPANY



세종예술의전당

# 세종

SEJONG



그의 고뇌는 역사를 춤추게 한 무수한 몸짓이 된다.  
경기도무용단, 춤 드라마 '세종'

2025. 11. 18. TUE 15:00, 19:30

세종예술의전당

### 경기도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예술즐거찾기> 사업 시행

경기아트센터는 올해 하반기 '경기도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예술즐거찾기>' 사업을 시행한다. <예술즐거찾기>는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팝스앙상블로 구성된 경기도예술단의 우수 공연을 경기도 31개 시·군 소재 주요 공연장에서 상연하는 사업이다.

2025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공연을 완료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를 제외한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그리고 경기팝스앙상블의 공연이 진행된다. 9월 5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경기필하모닉 클래식 콘서트>를 시작으로 가평, 파주, 포천, 남양주 등 경기도 전역의 다양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가 위치한 수원을 벗어나, 경기도예술단의 우수 공연 작품을 경기도 전역의 지역 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앞서 경기아트센터는 기관의 정체성을 '사람과 창작, 커뮤니티가 융합하는 예술생태계의 허브(hub)'로 설정한 바 있으며, <예술즐거찾기>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김상희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경기도예술단의 우수 공연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지역의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경기아트센터, 연이은 협약으로 지역 협력 강화

경기도의료원·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과 잇따라 협약

경기아트센터가 연이은 업무협약으로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9월 17일에는 경기도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18일에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과의 협약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각 공공의료와 문화복지, 공연예술과 관광을 결합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체결되었다.

먼저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의료원은 ▲지역사회 공공의료 및 문화복지 발전을 위한 연계 활동 ▲기관 자원을 활용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불어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 문화예술기관과 공공 의료기관으로써 양 기관이 쌓아온 경험과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의료 분야의 융합이 새로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9월 18일에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공연예술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여 경기도민에게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공동 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공연예술·관광콘텐츠 연계 홍보 및 마케팅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유치, 시설 사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협약의 첫 결실로 오는 10월 19일(일)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한·중·일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실내악 단체인 에라토 앙상블과 한국,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세 나라의 음악적 색채를 교류한다. 양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첫 협력사업으로,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선보임과 동시에 한·중·일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유다빈밴드 정규 2집 연주 참여**

‘청춘의 아이콘’ 유다빈밴드와 콜라보레이션, 다방면 활동 이어가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가 지난 9월 발매된 유다빈밴드의 정규 2집 <CODA> 수록곡 <커튼콜>의 현악 연주자로 참여했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경기아트센터가 지난해 창단한 단체로, 경기도 내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 4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이다. 그리고 유다빈밴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주관 우수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 <인디스팡스>를 통해 배출된 5인조 혼성 밴드다. Mnet의 밴드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TOP3에 오르며 대중에게 각인된 이후, 대학 축제 및 각종 페스티벌 섭외 1순위 등으로 급부상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규 2집 수록곡 <커튼콜>은 ‘막이 내리는 순간조차 찬사처럼 아름다운 사랑으로 함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밴드의 기타리스트 이준형이 작곡하고, 박인영 음악감독이 현악 편곡으로 협업했다. 박인영 음악감독은 2017년 한국 여성 작곡가 최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녹음 등 세계를 무대로 음악적 성취를 이루어 온 영화 음악감독 겸 작곡가다. <피에타> 등 영화음악, 걸그룹 레드벨벳의 <빨간 맛> 오케스트라 편곡(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 등으로 대중에게도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2021년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첫 디지털 싱글 <다시 부는 바람> 작업에 프로듀서로 참여한 바 있어, 이번 협업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변치 않는 희망을 전하는 이 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의 창단 취지와 맞닿아 있다. 리베라의 연주는 단순한 선율을 넘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연대를 노래하는 곡의 주제와 맞물려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한다.

**경기국악원, 가을맞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풍성**

영유아극, 어린이 국악극,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특별한 경험 선사

경기국악원이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가족 단위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경기도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영유아 맞춤형 공연 시리즈 <우리 아기 첫 극장 - 엄마랑 아기랑>의 첫 작품 <얼굴과 얼굴 - 마주 ; 봄>이 9월 공연을 성황리에 맞췄다. 이어, 두 번째는 어린이 국악 공연 시리즈 <움직이는 이야기>의 신작 <은혜 값은 까치>이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움직이는 이야기>는 5,000여 명의 관객이 관람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동명의 전래 동화인 <은혜 값은 까치>를 원작으로 한 국악 인형극 <은혜 값은 까치>를 창작극으로 풀어낸 공연을 올린다. 약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면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따뜻한 이야기다. 오는 11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11시 국악당에서 공연되며, 어린이 관객들에게 블록 조립 키트 제공, 배우들과의 기념 촬영, 국악놀이터 및 컬러링존 체험 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국악소풍>이다. 2006년 시작된 이후 매년 경기도 초등학교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어난 경기국악원의 대표 사업이다. 공연 관람과 더불어 장구 연주, 우리소리 배우기, 버나놀이 등 전통 연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놀이와 배움을 통해 국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 올해는 어린이 국악극 <꼬마 장승 가출기>를 관람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여 즐거움을 더한다. 공연은 11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경기국악원 국악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은혜 값은 까치> 문의: 031-289-6423

\* <국악소풍> 문의: 031-289-6422



# 2025. 10 |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1 경기국악원 &lt;은혜 깊은 까치&gt; 11:00 경기국악원 국악당</p> <p>아시아 댄스 페스티벌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2 아시아 댄스 페스티벌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3 경기도무용단 춤 사극 드라마 &lt;찬연의 행궁&gt; 14:00 / 20:30 수원 화성행궁 유여택</p>	<p>4 경기도무용단 춤 사극 드라마 &lt;찬연의 행궁&gt; 14:00 / 20:30 수원 화성행궁 유여택</p> <p>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 새로운 이야기 &lt;달라도 친구야&gt; 11:00 / 14:00 /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5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 새로운 이야기 &lt;달라도 친구야&gt; 11:00 / 14:00 /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7</p>	<p>8</p>			<p>11 2025 서가콘서트: 오만과 편견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p> <p>2025 임창정 30주년 &lt;촌스러운 콘서트&gt;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12 지브리&amp;디즈니 영화음악 FESTA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퓨전국악 Queen's Mixtape 17:00 경기국악원 국악당</p>		<p>14</p>	<p>15 경기국악원 &lt;은혜 깊은 까치&gt; 11:00 경기국악원 국악당</p>		<p>17 연극 &lt;사형수 김대중&gt;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p>	<p>18 손열음&amp;런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19 추석특집 조항조 요 콘서트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웹툰 오페라 갈라 17: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p>		<p>21</p>	<p>22 경기국악원 &lt;은혜 깊은 까치&gt; 11:00 경기국악원 국악당</p>		<p>24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 &lt;불멸&gt;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25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 &lt;불멸&g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p> <p>너의 이름은. 필름콘서트 15: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26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영화 &lt;블레로: 불멸의 선율&gt; 17:00 경기아트센터 열린무대</p>	<p>27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오프닝콘서트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28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29 경기국악원 &lt;은혜 깊은 까치&gt; 11:00 경기국악원 국악당</p> <p>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p>	<p>30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브런치 콘서트: 라벨, 해설이 있는 클래식 11: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p> <p>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신박듀오 피아노 리사이틀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p>31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조윤성트리오 재즈콘서트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p>	

· 티켓 문의 031-230-3441(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 상기 공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과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방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QR 코드를 통해서도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1</p>  <p>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STAGE FOR YOU 11: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p> <p>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피날레 콘서트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2	3	 <p>경기국악원 &lt;은혜 같은 까치&gt; 11:00 경기국악원 국악당</p>	5	6	7	8
9	10	11	12	13	 <p>2025 세시봉 &lt;The Last&gt; 콘서트 14:00,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15
16	 <p>2025 김창욱 토크콘서트 시즌 5 13:00 /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18	 <p>2025. 11. 20. 목 19:30 경기국악원 국악당</p>	20	 <p>2025 백지영 전국투어 콘서트 &lt;PLAYBAEK&gt; 14:00 /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p>	22
23	 <p>2025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lt;지브리, 재즈를 만나다&gt; 17: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p>	25	26	27	28	29
3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b>경기아트센터</b></p> <p>예술과만남 고객만족도 조사</p>  <p>“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p> <p>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나은 예술과만남을 만듭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p> <p><a href="http://www.ggac.or.kr">www.ggac.or.kr</a></p> </div>					

### 예술과 만나다

<예술과만남>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의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숨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화 예술의 가장 핫한 이슈를 만나보세요.



#### 카카오톡 채널: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경기아트센터 대표 매거진 <예술과만남> 콘텐츠를와 프로모션 소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감 넘치는 공연 열기를 전합니다. 풍성한 SNS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마련한 문화 예술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youtube.com 깍! TV 경기아트센터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내 손안에서 펼쳐지는 명작 공연 실황, 브이로그, 인터뷰 등 다양한 현장 소식과 공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www.ggac.or.kr

경기아트센터는 다양한 공연과 예술 문화를 선도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국내외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지역 예술인과 관객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 “뜨겁던 여름 지나, 찬연한 가을로”

무더운 여름날, 그 끝자락에 만난 인터뷰 현장 속 김경숙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의 얼굴에는 자식 자랑하는 엄마의 마음같이, 단원들의 기량이 멋진 밥상에 잘 차려지기만을 바라며 전통 춤에 대한 책임과 애정을 쏟는 그 열정이 마치 송글송글 한 방울 한 방울 땀으로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열정만큼이나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마침내 모두의 시장기를 달랠 풍요로움과 기쁨을 알리듯, 선선한 가을바람이 어느덧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9월 중순 <찬연의 행궁>의 무대가 될 화성행궁 유여택(維與宅)에서

# EDWARD GARDNER YEOL EUM SON

에드워드 가드너 · 손열음 & 런던 필하모닉

##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2025. 10. 18 SAT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지휘 에드워드 가드너 Edward Gardner | 협연 손열음 Yeol Eum Son | 연주 런던 필하모닉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베토벤 | 레오노레 서곡 3번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1번

차이콥스키 | 교향곡 5번

©B\_Ealovega

©Marco\_Borggreve

주최·주관 GGAC 경기아트센터 예매 NOLticket 1544-2344 문의 031-230-3266

티켓가격 R석 22만원 S석 16만원 A석 10만원 B석 8만원 만원의행복석

